

2016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안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안

- 김성호 연구원 -

연구진		
책임 연구자	김성호	미래교육부
공동 연구자	김충식	마산중앙초등학교
	문해원	회원초등학교
	진영학	호계초등학교
	정지영	장북초등학교
	구소영	양산초등학교
	전홍표	미래교육부
	류영철	미래교육부

- 목 차 -

<요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내용	2
3. 연구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1. 학습부진의 개념과 학습부진학생	5
2.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흐름과 세계적 동향	10

III.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학교 실태

1. 학교교육계획서에 나타난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	14
2. 현장교사 인터뷰를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	17
3. 초등 입문기 학생의 학습 및 지원 실태	33

IV. 경로의존성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 분석

1. 경로의존성	39
2. 진단체계의 경로의존성	39
3. 학습부진학생 지원 체계의 경로의존성	40
4. 환류 체계의 경로의존성	40
5. 초등 입문기 학생에 대한 지원의 경로의존성	41

V. 학습부진학생 지원의 방향과 방안

1.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방향성	42
2. 학습부진학생 지원의 경로의존성을 개선한 사례	44
3. 생태체계적 지원 프로그램 적용	53
4. 초등저학년 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57
5. 원도심 및 농어촌 학교에 대한 우선적 지원	61

VI. 결론

1. 요약	63
2. 정책 제언	66

* 참고문헌	69
--------------	----

* 부 록	71
----------------	----

- 표 목차 -

<표Ⅱ-1> 선행연구에서의 학습부진 개념 상호 비교	5
<표Ⅱ-2>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유형과 특성	7
<표Ⅱ-3> 교육소외의 유형	8
<표Ⅱ-4> 학습부진학생의 특성	8
<표Ⅱ-5> '기초학력,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내용	11
<표Ⅲ-1> 학교교육계획서 분석 결과	15
<표Ⅲ-2> 학습 및 다중지원 프로그램	16

- 그림 목차 -

[그림 Ⅲ-1] 입학 초기 한글 이해득 학생 실태	33
[그림 Ⅲ-2] 한글 이해득 학생에 대한 별도 지도 여부	34
[그림 Ⅲ-3] 9월 한글 이해득 학생 실태	34
[그림 Ⅲ-4] 한글 해득이 가능했던 지도 방법	35
[그림 Ⅲ-5] 9월 현재 한글 이해득 지도 방법	35
[그림 Ⅲ-6] 1학년 학생 기초 셈하기 실태	36
[그림 Ⅲ-7] 기초 셈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도 방법	36
[그림 Ⅲ-8] 입학 초기 학습진단활동 필요성	37
[그림 Ⅲ-9] 한글 지도, 기초 셈하기 지도 자료의 필요성	37
[그림 V-1] 학습부진학생 상담 process	45
[그림 V-2] 학습부진학생 가정방문 보고서	46
[그림 V-3]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 자료1	48
[그림 V-4]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 자료2	49
[그림 V-5] □□초등학교 나의 성장 보고서 및 탐색지도 내용	51
[그림 V-6] 디딤돌 학습장	52
[그림 V-7] '맞춤형 학업향상 관리 프로그램'의 절차	54
[그림 V-8] 학습부진 유형 진단 검사 결과 정리 예	54
[그림 V-9] 담임교사의 종합 의견	55
[그림 V-10]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설정	55
[그림 V-11] 가정과 협력 시 고려 사항	56
[그림 V-12] 프로그램 운영 평가 결과	56
[그림 V-13] 기초학력 핵심요소 분석 자료 활용 예시	59

<연구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최대 성취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과 모든 학습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공교육의 중요한 책임이자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교육형평성 측면에서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의 흐름을 개괄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근거한 단위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학습부진학생의 학교생활 전반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향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가. 연구 내용

- 1)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흐름과 경로의존성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가) 학습부진학생의 개념과 유형
 - 나)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흐름과 성과
- 2)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학교 실태
 - 가) 학교교육계획서 분석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
 - 나) 현장 교사 인터뷰를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
 - 다) 설문조사를 통한 초등 입문기 학생의 학습 및 지원 실태
- 3) 경로의존성을 통한 실태 분석
 - 가) 경로의존성
 - 나) 진단 체계 분석
 - 다) 학습 및 다중 지원 체계 분석

- 라) 환류 체계 분석
- 마) 초등 입문기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 분석
- 4)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향과 방안
 - 가)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방향성
 - 나) 경로의존성을 개선한 학교 사례
 - 다) 생태체계적 학습부진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라) 초등 저학년 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 마) 원도심 및 농어촌 학교에 대한 우선적 지원

나.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 가) 학습부진의 개념, 요인 및 학습부진학생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 나)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들의 현황과 흐름 분석
- 다) 학교교육계획서 분석
 - (1) 대상: 경남교육청 관내 시(동)지역 4개교, 군(읍면)지역 4개교
 - (2) 시기: 2016.7~9월
 - (3) 내용: 2014~2016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중 학습부진학생 지원 계획

2) 학습부진학생 업무 담당 교사 면담

- 가) 대상: 학습부진학생 업무 담당교사 16명(시 지역 8명, 군 지역 8명)
- 나) 시기: 2016. 8. 9.~10.
- 다) 내용: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 및 대책, 개선방안

3) 초등 입문기 담임교사 설문조사

- 가) 대상: 경남교육청 관내 초등 1학년 담임교사 821명
- 나) 시기: 2016. 9. 8.~13.
- 다) 내용: 초등1학년 학습실태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4) 사례 수집

- 가) 대상: 경남교육청 관내 초등 4개교
- 나) 시기: 2016. 7~9월
- 다) 내용: 학습부진학생 지도의 경로의존성을 개선한 사례

3. 연구 결과

가. 학습부진학생과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 흐름의 이론적 검토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서 학습부진학생과 지원 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개념을 비교하고, 학습부진의 원인과 유형, 교육복지적 관점에서 교육소외, 학습부진학생의 특성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학습부진학생을 통상적으로 학습에 있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이 아니라 ‘학업 수행에 곤란을 느끼는 모든 학생’이라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학습부진이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낮은 학습동기 혹은 노력 부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정환경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거주지 분화에 의해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의 흐름을 국내와 세계적 동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국내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199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시기는 ‘학습부진학생 책임 지도제’를 중심으로 한 교사 중심의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따른 ‘학력 향상 중점학교’ 등 다양한 학교 내 학습부진학생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학교 중심 지원 체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는 학습부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진단-보정-관리 시스템 구축, 학생과 학교에 대한 외부 전문지원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다중 지원 체제의 시기로 볼 수 있었다.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도 이와 비슷한 궤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과 복지의 연계, 학습부진에 대한 사회적 수준의 접근, 사전 예방에 대한 강조,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집중적 지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다중 지원 시스템과 학습 방해 요인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 등 그것이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나.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학교 실태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학교 실태는 학교교육계획서 분석과 현장 교사 인터뷰, 1학년 담임교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8개 학교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교교육계획서 상에 나타난 학습부진학생 지원 계획을 분석하였다. 단위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지도 계획이 아니라 학교교육계획서를 분석한 근거는 학교교육과정을 '제도'로서 파악하는 관점을 취했기 때문이다. 제도적 범주로서 교육과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교사의 행동논리가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에 따라 교사의 행동논리가 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면, 교사들의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 대한 행동논리도 그렇게 결정될 것이다.

8개 학교의 3년간 학교교육계획서에 나타난 학습부진학생 지원 체계를 진단체계, 학습 지원 체계, 다중 지원 체계, 환류 체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진단과 학습 지원 체계에 비해 다중 지원과 환류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차원에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이 표준화 검사를 통한 일회성 학습부진학생 분류, 학습 중심의 지원으로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2014년도 1개 학교에서만 발견되던 다중 지원 프로그램이 2016년 3개교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에 대한 이해가 일정정도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시 지역 8개 학교, 군 지역 8개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담당 및 관련 업무 교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교사 인터뷰는 크게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학습부진학생 지원 체계에 대한 실태,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으로 범주화 하여 진행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학습부진학생을 만나는 교사들은 학교가 위치한 가정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학습부진의 주요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농어촌 학교나 원도심 학교의 경우는 학습부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진단은 학년 초 일회성 진단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판별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도 및 지원도 담임교사 학생을 방과 후 시간에 학습지 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이후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환류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없었는데, 이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 1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에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진단-지도 및 지원-환류의 과정에서 학생의 전반적인 성장이

고려되고 있다기 보다는 특정 점수를 상회하기 위한 반복적인 문제 풀이와 결과 중심의 학습부진학생 지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와 지원에 있어서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관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안정적인 지도 시간 확보, 전문적인 진단과 지원의 부재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이 현재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지원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토로했으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세 번째, 초등 입문기 학생의 학습 및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1학년 담임교사 8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응답교사 중 83%가 담당학급에 입학 시 한글 미해득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입학 초기 한글 미해득 학생 가운데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통하여 한글 해득이 된 학생은 10% 불과하다고 응답하였다. 9월까지 한글을 해득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21%였으며, 부분적 해득만 가능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65%에 이르렀다. 또한 77%의 교사들이 입학 초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84%의 교사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1학년 학생들을 위한 한글 지도, 기초 셈하기 지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입학 초기부터 이미 진행된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정책적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다. 경로의존성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 분석

학교교육계획서 분석, 현장 교사 인터뷰, 1학년 입문기 담임교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행 학교 현장의 학습부진학생 지도 및 지원에 대한 뚜렷한 경로의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로의존성이란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가 지속되는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 원용되는 개념인데, 특정한 관행에 익숙해지고, 그에 의존하면 후에 그 경로의 비효율성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이 90년대의 담임 책임지도, 2000년대의 학교 체계를 통한 지원, 2010년대 다중 지원 체계 등으로 뚜렷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적 변화의 흐름이 반영되기 보다는 기존의 학습부진학생 지도 및 지원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진단 체계에 있어서 일회성 진단평가를 통한 학습부진학생 판별, ‘담임 책임’에 기초한 학습지 풀이 방식의 지도 및 지원 체계, 1년 단위의 학습부진학생 판별과 지도, 초등 입문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학습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초등2~3학년 단계까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판별을 늦추는 ‘제도적 방치’ 등이 모두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학교 현장의 경로의존성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라. 학습부진학생 지원의 방향과 방안

선행연구 분석 및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습부진의 요인은 개인적 요인 보다는 가정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기반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들은 학습부진에 대한 관점이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 현장의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안이 가지는 경로의존성이 개선되거나 극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학교 현장의 경로의존성을 개선한 사례로 교내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한 ○○초등학교, 동학년 중심의 학습부진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한 ◇◇초등학교, 지역사회 자원을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활용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생태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학업향상 관리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안하였으며, 초등 저학년 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으로 지원 근거 및 검사 도구 개발,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 저학년 담임교사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불리한 지역적 배경을 가진 원도심과 농어촌 학교에 대한 우선적 지원 방안으로 기존 정책 사업과의 연계 및 사업의 우선권 배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각각 제안하였다.

4. 개선 방향 및 제언

기존에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요인의 결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학습부진의 요인이 가정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관점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학습, 심리·정서, 지능, 가정 배경 등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불리함’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취약계층’이라는 말로 통칭하고 있으나 이들의 ‘불리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들이 가진 ‘불리함’을 ‘교육적인 요구’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보다 포괄적인 형태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보다 조기에 지원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공교육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는 핀란드 교육철학 “누구도 보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말은 경상남도교육의 공동체성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철학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학생이 가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생태체계적 프로그램 개발 적용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 방법은 학습부진의 판별과 지원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며 이는 학습부진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그에 따른 최적화된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유용하며, 복합적 요인을 가진 학습부진의 경우에는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현재 생태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정책 사업으로는 2006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두드림 학교 사업을 들 수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는 한 번 지정되면 3년의 안정적인 사업 기간을 가지고 추진되는데 비해, 두드림 학교 사업은 1년 기간의 공모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두드림 학교 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달리 학습부진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기존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안이 가지고 있는 경로의존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사업학교의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드림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중지원팀'의 우수 사례를 비 사업학교에도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교사들이 연수를 통하여 다양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 사례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나. 초등 저학년 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강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 간 차이, 다문화 가정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초등 입문기 학생의 학습격차는 '이미 발생한 문제'이며, 이후 더욱 심화되어 공식적인 학습부진학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 초기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가진 학생(경계선상 지능, 난독증, ADHD 등 학습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대전, 충남, 전남교육청 등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또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http://www.basics.re.kr>)의 초등 입문기

학생 지도 자료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연수나 핵심성취기준을 목록화, 체계화하여 즉각적인 보정을 투입할 수 있는 자료의 활용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한글교육 시수 확대에 따라 초등 입문기 학생과 저학년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한글 교육 책임제'의 도입과 초등 저학년 교사들을 위한 연수, 담임연임제, 수업전년 학년 담임제의 적용도 검토할 만한하다.

다. 원도심 및 농어촌 학교에 대한 우선적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오늘날 학생에게 발생하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은 그 원인이 학교 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교가 학생이 가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접근의 방법과 해결을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학생 지원 시스템 속에는 보다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고, 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학교보다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와 연계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단위 학교에서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해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줄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목록이나 교육 자원 지도의 형태로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취약성으로 인해 드러나는 학습부진학생의 경우,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학습부진학생 지원 사업인 ‘두드림 학교’의 경우 원도심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예산도 학교의 특성에 맞게 상한선을 두고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년도부터 시작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사업에도 지자체 선택 과제로 원도심이나 농어촌 학교 학습부진학생 지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원도심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안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최대 성취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과 모든 학습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수월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공교육의 중요한 책임이자 과제이다.

과거 학습부진학생은 학습 동기나 학습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했으나, 이미경 외(2007)는 PISA 2006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김경희 외(2008)는 TIMSS 2007 결과 분석을 통하여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이 많을수록 수학·과학 성취도가 낮았고, 저소득층이 적을수록 성취도가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류방란 외(2006)는 부모소득이 높아질수록 학습지원, 수업집중시간, 상위권 대학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기도 교육종단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 학습부진학생 실태를 분석한 연구(이혜정 외, 2013)에서도 경기도 학생들의 학습부진 요인은 학생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여부 보다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구조적 상황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뿐만 아니라 2006년, 200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한 자료(조지민 외, 2007; 양길석 외, 2008)에 따르면, 도시지역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생들에 비해 학업 성취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학력과 기초미달학력 비율은 읍면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 간 학력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부모의 학력 수준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비례하는 가정배경에 따른 학력격차도 나타났다.

가정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학습부진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개인적 수준에서

벗어나 사회 양극화와 같은 문제와 연결되면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 지난 6월과 8월에 각각 국회에서 발의된 ‘기본학력보장법안’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종훈(2014)은 학생부진학생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 진흥법을 비교하면서 수월성 교육의 차원에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교육대상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영재교육 진흥법 수준으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 정비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학습부진의 원인을 가정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찾는다고 해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습부진학생의 문제가 개인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 양극화, 사회 양극화와 같은 사회 문제의 주요한 쟁점이 된다면 공교육의 교육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은 기존의 정책적 경로를 벗어난 새롭고 대안적인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까지 추진 되어온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흐름을 개괄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에 근거한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와 지도 및 지원 방안에 있어서 경로의존성과 대안적 접근을 시도한 학교 사례들을 통하여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교육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학습부진학생의 학교생활 전반 더 나아가 삶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흐름과 경로의존성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1) 학습부진학생의 개념과 유형
- 2)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흐름과 성과

나.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학교 실태

- 1) 학교교육계획서 분석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
- 2) 현장 교사 인터뷰를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
- 3) 설문조사를 통한 초등 입문기 학생의 학습 및 지원 실태

다. 경로의존성을 통한 실태 분석

- 1) 경로의존성
- 2) 진단 체계 분석
- 3) 학습 및 다중 지원 체계 분석
- 4) 환류 체계 분석
- 5) 초등 입문기 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 분석

라.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안

- 1)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방향성
- 2) 경로의존성을 개선한 학교 사례
- 3) 생태체계적 학습부진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4) 초등 저학년 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 5) 원도심 및 농어촌 학교에 대한 우선적 지원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 1) 학습부진의 개념, 요인 및 학습부진학생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 2)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들의 현황과 흐름 분석
- 3) 학교교육계획서 분석
 - 가) 대상: 경남교육청 관내 시(동)지역 4개교, 군(읍면)지역 4개교
 - 나) 시기: 2016.7~9월
 - 다) 내용: 2014~2016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중 학습부진학생 지원 계획

나. 학습부진학생 업무 담당 교사 면담

- 1) 대상: 학습부진학생 업무 담당교사 16명(시 지역 8명, 군 지역 8명)
- 2) 시기: 2016. 8. 9.~10.
- 3) 내용: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 및 대책, 개선방안

다. 초등 입문기 담임교사 설문조사

- 1) 대상: 경남교육청 관내 초등 1학년 담임교사 821명
- 2) 시기: 2016. 9. 8.~13.
- 3) 내용: 초등1학년 학습실태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라. 사례 수집

- 1) 대상: 경남교육청 관내 초등 4개교
- 2) 시기: 2016. 7~9월
- 3) 내용: 학습부진학생 지도의 경로의존성을 개선한 사례

Ⅱ. 이론적 배경

1. 학습부진의 개념과 학습부진학생

가. 학습부진 개념

학습부진은 통상적으로 학습에 있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학교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학습부진’이라는 용어는 주로 판별 검사의 기준에 따라 기초학습부진, 교과학습부진, 기초학력미달로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기초학습부진의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확인하여 일정 점수 미만인 학생을 선별하는 것이고, 교과학습부진은 초등학교 2~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년도 초기에 이전 학년의 최소 도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을 선별하는 방식이며, 기초학력미달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성취 목표의 20% 미만 도달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초등학교 대상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된 상태이므로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습부진, 교과학습부진만 판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교육청별로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학습부진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대식(2011)은 잠재학습능력, 학습부진의 기준, 개인의 내외적 원인 등을 기준으로 선행 연구 결과를 아래의 표와 같이 상호 비교하여 학습부진을 “학습능력은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이나 인지능력 이외의 개인적인 요인, 특히 그 중에서도 선수학습 요소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학업성취”로 규정했다.

<표Ⅱ-1> 선행연구에서의 학습부진 개념 상호 비교

연구	잠재학습능력	학습부진 기준	개인 내적 원인	개인 외적 원인
김수동 외(1998)	정상적인 학교학습 잠재능력	설정된 목표 대미 수락 가능한 최저학업성취 수준 미달	개인의 성격, 태도, 학습습관	환경요인
박병량 외(1980)		수락 가능한 최저수준(60점)미달	학습에 필요한 요소의 결함	
박성익 외(1984)	정상적인 학교학습 능력	설정된 목표 대미 수락 가능한 최저학업성취 수준 미달	선수학습 요소 결손	

연구	잠재학습능력	학습부진 기준	개인 내적 원인	개인 외적 원인
신세호 외(1979)	잠재적 학습능력	정상적인 수업조건에서 기대되는 학습 성취 미달		환경적 결함
이화진 외(1999)	정신지체 및 심한 정서장애 제외	3R's 기초학습기능 결손자 및 교과별 최소학업수준 미달자	선천적 요인	환경적 요인(가정, 학교 환경 등)

출처: 이대식·황매향(2011). p.15.

이혜정 외(2013)는 학습부진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점은 누구를 학습부진학생으로 볼 것이며, 어떻게 지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학습부진 개념 정의 용소와 학습부진 선정 기준이 일괄적이고 명료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과 그러한 기준이 오히려 학습부진을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고 보는 입장의 논쟁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학습부진 개념과 기준 관련 쟁점을 학습부진 기준, 학습부진 영역 교과, 학습부진 관련 평가 시점 및 대상 기간, 학습부진과 학습장애 개념 구분 등으로 정리했다.

한편 조난심 외(2009)는 학습부진 개념의 특징을 학습부진은 발생 원인보다 결과적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 학습부진의 원인을 개인 내적인 것보다는 교수학습의 환경적 원인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점, 학업성취와의 비교 준거를 지적 능력에 두고 있다는 점, 주로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 네 가지로 파악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학습 장면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교사는 이 학생들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학습부진학생을 “학업 수행에 곤란을 느끼는 모든 학생”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개념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습부진아 판별검사 연구에서도 사용되었다(김선 외, 2001).

본 연구에서는 학습부진 및 학습부진학생을 광의의 개념, 학습부진학생을 “학업 수행에 곤란을 느끼는 모든 학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는 학습부진에 대해 ‘없앨 수 있는 현상’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학습부진학생에 대해 ‘제거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관점을 전환하게 할 것이며,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실적’에서 ‘장기적인 성장’으로의 방법적 모색을 유도할 수 있다(이혜정 외, 2013). 또한 세계적으로 공교육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는 핀란드 교육철학 “누구도 보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공동체성을 우리 교육에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철학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력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학습부진학생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안(이화진 외, 2011)할 수 있다.

나. 학습부진의 원인과 유형

학습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정원식 외(1979)는 학습습관에서 비롯되는 원인, 개인의 생활에서 비롯되는 원인, 객관적 환경 조건에서 비롯되는 원인, 개인의 신체 건강 상태에서 비롯되는 원인, 학습 결손의 누적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난심 외(2009)의 연구에서는 학습부진의 원인을 발달심리학적인 측면,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환경적 측면, 수업과 관련된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학습부진과 관련하여 그 유형에 관한 분류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시도되었는데, 조난심 외(2009)에서는 학습부진 유형을 학습자가 가진 삶의 지향과 연결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Ⅱ-2>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유형과 특성

기초학력 부진 유형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특성
학습형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함
놀이형		학습보다 놀이에 더 관심이 있음
또래형		학습보다 또래에 더 관심이 있음
장애형	심리적	심리적 장애로 인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음
	인지적	인지적 기능의 장애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음
무지향형(사회적)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부진이 누적되어 어디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음

출처: 조난심(2009). p.130.

이대식 외(2011)는 학습부진의 유형을 학습의지 부족형, 학습동기 결여형, 공부방법 부적절형, 누적된 학습 결손형, 심리·정서 불안정형, 건강 및 신경심리학적 문제형, 교과별 필수 기본학습기능 결여형, 물질적, 심리적 지원 결여형, 수업의 질 미흡형, 복합형으로 분석하였고, 이화진 외(2009)는 학습부진학생의 유형을 보육이 필요한 학습부진학생,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습부진학생, 학습 결손 누적이 해결이 필요한 학습부진학생, 학습 태도와 동기유발이 필요한 학습부진학생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교육복지적 관점에서 교육소외¹⁾로서 학습부진의 문제에 접근하면서 교육소외의 유형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1) 교육소외란 “정상적인 교육의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 경험을 갖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지닌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안병영·김인희, 2009)

<표 II-3> 교육소외의 유형

교육소외의 유형		현상
교육기회의 접근 제한		교육기회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접근의 정도가 충분치 못함
교육 부적응	교육내용 부적응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교육내용과 학습자의 교육 필요가 맞지 않음
	교육방법 부적응	교육을 받고 있으나 교육방법이 부적합하여 효과적 학습 저해
	교육환경 부적응	물리적 환경
심리적·문화적 환경		교육장소의 심리적·문화적 환경이 부적합하여 효과적 학습 저해
교육기회 공급 불충분		교육의 질적 조건은 적합하나 교육자원 부족 등으로 학습자의 교육적 필요를 양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함

출처: 안병영·김인희(2009). p. 23.

이혜정 외(2013)는 다양한 학습부진학생의 특성을 일반적인 특성, 교과 영역별 특성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면서 많은 학습부진학생들이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해도 영역과 관심 분야에 따라서는 다른 학생들보다 우수한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표 II-4> 학습부진학생의 특성

항목	특성
일반적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학업성취를 보인다. - 학습동기, 학습의욕, 과제 집착력 등이 약하다. - 기본적인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단기기억, 작업 기억 등)이 낮다. - 뚜렷한 학습목표가 없다. - 대체로 주변의 심리 및 물질적 환경이 열악하다. - 간혹 주지교과 이외의 영역에서 특별한 재능이나 흥미를 갖고 있을 수 있다. -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학습결손을 갖고 있다. - 각 교과영역별 기초 기술이나 선수학습 기술이 부족하다. - 공부기술이나 학습전력이 빈약하고 비효과적이다. - 흔히 정서, 행동, 심리적인 불안정이나 어려움을 갖고 있다. - 실제로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의 양이 적다.

항목	특성
국어 학습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운 인식, 자·모음과 그에 해당하는 소리 대응 알기, 낱글자 및 문장 읽기 유창성, 어휘, 독해 중 어느 하나 혹은 그 이상에서 또래에 비해 매우 낮은 수 행을 보인다. - 읽기 활동 자체에 별 흥미가 없고, 읽기 시간 절대량이 또래에 비해 매우 적다. - 글자 쓰기가 매우 서툴고 느리다. - 생각이나 느낌을 조리 있게 적절하게 문장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수학 학습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단순한 연산 유창성이 매우 낮다. - 기본적인 수감각, 수개념에 약하다. - 대개 읽기 부진 현상을 같이 보인다.
기타 내용 교과학습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교과의 주요 개념이나 용어에 매우 약하다. - 배경 지식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

출처: 이해정 외(2013). p.25.

학습부진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학습부진학생의 유형과 특성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학습부진학생에게 접근하는 지도와 지원의 방법에 있어서 그 경로가 다양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해정 외(2013)의 연구에서 학습부진은 학생 개인의 낮은 학습동기나 노력 부족에 의해서보다는 가정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보여주었고 학교의 평균적인 SES²⁾나 학교소재지가 비교적 일관되게 학습부진 여부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히면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거주지 분화가 심화되면서 학습부진학생이 밀집해 있는 학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학습전략이 일관되게 학습부진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가 효능감이나 학습전략 등을 제고하는데 전문성을 가진 경우가 많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면 학교 밖에서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하는 지역사회 공부방 등은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 문제풀이식 지도보다는 효능감이나 학습전략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같은 연구에서 학생중심수업이나 학교풍토가 학습부진 여부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일부 부정적인 영향까지 드러난 점을 근거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감소시키는데 학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전 연구를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학습부진의 다양한 원인과 유형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교육복지적 관점을 제시한 이화진 외(2009)는 적극적 복지 측면에서 사전적 예방의

2) 이해정 외(2013)의 연구에서 학교수준의 변수 중 SES(Socio-Economic Status)는 학생 수준에서 구성된 SES(자녀의 학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자본과 인간자본)를 각 학교별로 평균한 값이다.

접근이 있어야 하며, 소극적 복지 측면에서는 학습부진이 야기되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소외의 유형을 분석하여 적절하고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흐름과 세계적 동향

가.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경과

학습부진학생 관련 지원 정책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 교육 흐름의 취지와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1) 1990년~2000년: 교사 중심 지원 체제

198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자료를 개발(박성익 외, 1984)하는 등 국가 수준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97년 초·중등학생의 기초학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7년 5월부터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를 운영하였다. 학습부진학생의 지도는 담임·교과 담당교사가 책임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연계하여 보충학습 자료 개발,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단위학교 중심의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정책을 시행했다.

2) 2001년~2010년: 학교 중심 지원 체제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기초교육보장’을 목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박성혁 외, 2008)를 제시한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는 시·도 교육청 및 학교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리고 국가수준의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2002년 10월부터 매년 실시했다. 이 평가 결과 학습이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는 담임 및 교과 담당교사가 책임지도를 하도록 했고, 별도 프로그램과 특별 보충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이혜정 외, 2013).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로 전환되었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 평가를 기초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여 재정적 지원하기 시작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계획'은 평가체계의 선진화의 일환으로 시행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 밀집학교를 집중 지원하여 학교 내 학습부진 예방-진단-지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의 학습지도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종래의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차원에서 기초 및 교과학습부진학생을 책임 지도하는 제도라면,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교육부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학습부진학생 밀집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게 하는 국가수준의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이화진 외, 2009). 이 시기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보조교사 및 학습부진학생 대상의 공부방 등 학교 내에 다양한 학습지원체계가 마련된 시기이다.

3) 2011년~현재: 다중지원체제

2011년 10월 12일 교육부는 '기초학력·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 미달의 주요 요인임에도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ADHD, 우울, 난독증 등 '정신건강' 장애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 실천 과제로 정서행동발달 장애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제 구축, 정신건강 관련 교사 연수 의무화 추진, 정서심리 온라인 진단체제 구축 등이 있다.

<표 II -5> '기초학력·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내용

	< 현 행 >		< 개 선 >
기본방향	• 기초학력에만 중점	→	• '기초학력+정신건강' 함께 지원
학생지원	• 일부학생 대상 진단검사 실시 * 초1, 4, 중1, 고1 * 진단 후 후속지원 부족	→	•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 선별검사 지원 * 학습부진학생 대상 심층검사 지원 • 학습부진 요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단위학교 지원	• 정서행동발달 장애학생 대상 학교 내외 교육프로그램 부재	→	• 학력부진학교 대상 전문상담인력 집중 배치(교내외/방학중 프로그램) •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센터 구축(30개소)
교사·학부모 지원	• 연수체제 미비 학생 지도에 애로	→	• 정서심리 교사 연수 의무화(15시간이상) • 학부모 연수 확대
평가 인프라	• 교과학습 위주 평가	→	• 정서심리 진단평가 체제 구축(온라인 평가 도입)

출처: 교육부(2011). p. 3.

이어 2012년 2월에는 2012년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뒤쳐진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미달 사전예방을 위한 진단-보정-관리 시스템 구축, 학생과 학교에 대한 외부 전문지원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 학력부진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인턴교사 배치, 온라인 진단 도구 개발, 보급, 학습부진 종합클리닉센터 설치 확대, Wee센터 등 외부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있다. 2013년 7월 '기초학력·정신건강' 우수교육청(서울, 대구, 대전, 전남, 경북)의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이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국 단위의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고 이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5년간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주요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정책 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추진과 교사가 학습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수-학습 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육부 내·외 제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및 교원·학부모 연수 강화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셋째, 지역단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망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단위학교·외부기관(병·의원, 민간단체, 복지기관, 전문학회 등)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 교·사대와 교육청·단위 학교간 교육협력을 강화한다.

2014년 2월 교육부는 '2014년도 기초학력 지원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진단, 보정과 학습이력을 통합관리 하는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심리상담과 학습코칭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 운영 등 현재의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갖추게 된다.

나.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추세

미국, 영국, 핀란드의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을 비교, 분석한 이화진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각 국의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정책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은 교육과 복지를 연계해 나가는 추세이다.

둘째, 학습부진의 의미가 개인적 수준에서 벗어나 사회적 수준으로 접근되며, 과거 특수교육의 대상이었던 장애와 학습부진의 경계가 사라지는 추세이다.

셋째, 적극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학습부진의 발생 후 대처보다 사전예방이 보다 강조되는 추세이다.

넷째, 학습부진학생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추세이다. 즉 정규 수업에서 학습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을 우선하되, 학습 곤란을 느끼는 학생이 있다면 조기 중재를 통해 제 진도학습을 지원한다. 그래도 못 따라가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강학습을 제공한다.

다섯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다중 지원팀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빈곤, 가정문제, 정서심리행동 문제 등)들을 확인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이다.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세계적 추세가 우리나라의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은 1990년~2000년까지는 학습부진학생의 담임 및 담당교사 책임제를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2001년~2010년까지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와 더불어 학습부진학생 밀집학교 지원 등 학교 단위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간다. 2011년 이후로 진행되는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학교 안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 밖 지원 체계를 동시에 구축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단순히 지원 대상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컨설팅단 운영,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물론, 두드림학교 지원이나 학습클리닉 센터 사업처럼 학습 이외의 복지나 심리 상담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계선 학교 지원이나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구축처럼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여건과 기반 조성 관련 노력에까지 지원 영역이 확장된 점이다(이대식, 2015).

2016년 17개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을 분석한 결과,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 센터 등 교육부 주도의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학습복지체제 구축', 강원교육청은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경기도교육청은 '학습 안전망 구축', 대구교육청은 '고른 교육기회 여건 조성', 대전교육청은 '조화로운 학력 향상 실현'이라는 정책 과제명으로 학습부진학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과제명을 통해서도 교육과 복지를 연계하고, 학습부진의 의미를 사회적 수준으로 해석하는 교육청의 학습부진학생 지원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Ⅲ.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학교 실태

1. 학교교육계획서에 나타난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

학교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따라 교육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교육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교육계획서는 학교교육과정을 문서화한 것이다.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있어서 학교교육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광영순 외(2013)는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은 교사 개인을 넘어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사는 학교조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고 전제하여 학교조직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성격을 다음 세 가지 명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첫째, 교육과정은 제도이다. 둘째, 학교조직의 표준 운영절차는 교육과정 운영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셋째, 교사의 학급운영 일상은 교육과정 운영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교육과정을 제도로 본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변화를 제도의 변화로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제도의 변화는 행동 논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제도적 범주로서의 교육과정을 수용하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 계획과 운영에 관한 행위 논리를 변화시킨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직은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규칙을 확립한다. 이처럼 조직의 구성원들이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표준화된 일련의 작업 단계를 표준 운영절차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도 표준 운영절차에 따른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매우 상세화 될 수 있지만, 일상적인 과정에서는 거의 의식되지 않는다. 교사의 학급운영조차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즉 교사의 행동논리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며, 교육과정에 따라 교사의 행동논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면, 교사들의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도와 지원의 방향과 절차도 그렇게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 지역 4개 학교와 군 지역 4개 학교의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3개학년도의 교육계획서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관점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를 진단 체계, 학습 지원 체계, 학습 외 지원 체계, 환류 체계, 4가지였으며, 이 체계가 학교교육계획서 상에 드러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진단 체계: 학습부진학생 판별 및 부진 요소 파악 계획 및 도구, 기준
- 학습 지원 체계: 교내 지원 체계 구축, 학습지원(지도) 방법
- 다중 지원 체계: 학습(지도)지원 이외의 지원(상담 등), 외부 자원 연계 계획
- 환류 체계: 학습부진학생 지원(지도) 이후 재평가 계획 및 재평가 결과 환류 계획

또한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학교교육계획서 상 학습부진학생 지원 체계의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분석의 대상이었다.

진단, 학습지원, 다중지원, 환류 체계로 구분하여 8개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Ⅲ-1> 학교교육계획서 분석 결과

학교	진단체계			학습 지원체계			다중 지원체계			환류 체계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A	×	×	×	0	×	0	×	×	×	×	×	×
B	0	0	0	0	0	0	×	×	×	×	0	0
C	0	0	0	0	0	0	×	×	0	×	×	×
D	×	×	×	0	0	0	×	×	×	×	×	×
E	0	0	0	0	0	0	0	0	0	0	0	0
F	0	0	0	0	0	0	×	×	×	×	0	0
G	×	×	0	0	0	0	×	×	0	×	×	×
H	0	0	0	0	0	0	×	×	×	×	×	×

가. 진단 체계

학교교육계획서에 나타난 학습부진학생 진단을 위한 판별 계획과 도구, 기준이 3개년에 걸쳐 다 나타난 학교는 5개교였으며, 나머지 3개교는 없거나 일부 학년도에서만 발견되었다.

진단평가는 이전 학년의 교과 학업성취 정도를 파악하거나,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학습 이외의 부진요소를 찾기 위한 방법을 사용한 학교는 E초등학교와 G초등학교로 학습 관련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학습부진학생을 진단하는 체계가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통하여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판별’은 하고 있으나 학습부진의 구체적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까지 계획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학습부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학업성취도(성적)에 의해서이다. 하지만 학습부진의 요인은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진단 체계가 더욱 다양해질 필요성이 있다.

나. 학습 및 다중 지원 체계

진단체계에서 학습 이외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학교 수가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 지원 체계에서도 8개 학교 중 6개 학교가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의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이라는 용어의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담임교사가 해당 학년의 학습부진학생의 학업을 책임지라는 말인지, 학습부진이 발생한 최초의 학년으로 소급하여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 학습 이외의 영역이 부진의 요인이 되는 경우에도 그 요인을 해소하는 것까지도 교사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정하기가 어렵다. 8개 학교 중 학습 이외의 영역에서 부진의 요인을 찾고, 지원하기 위한 공식적인 다중 지원 체계가 있는 학교는 없었으며, 3개 학교는 학습 이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였다. 다중 지원 체계를 강조하는 국가정책 및 세계적 추세와 상응한다는 측면에서 2014년 1개교에서만 다중 지원 프로그램이 발견된 것이 2016년 3개교로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Ⅲ-2> 학습 및 다중지원 프로그램

학교	학습 지원체계	다중 지원체계
A	학습부진학생 맞춤 이력제, 공부방	
B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공부방	
C	학습부진학생 책임 지도제, 학력캠프	학습자존감,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D	학력향상협의회, 학습부진학생 책임 지도제	
E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학습 관련 심리검사
F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G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학습 관련 심리검사
H	학력향상반, 학력캠프	

다. 환류체계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 이후, 재평가의 과정은 진단의 정확성과 지원의 효율성을 가능하는 잣대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부진학생의 지원 이후 환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3개 학교에 불과했으며, 환류 계획의 내용도 추상적이었다. 환류 체계의 부재 및 미흡은 일선 학교에서 학습부진학생의 지원을 1년 단위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학습부진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학업 수행에 곤란을 느끼는 모든 학생”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학습부진의 원인이 무엇이든 어떤 학생이 학습장면에서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면, 비록 명시적으로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습부진의 극복으로 볼 수 있다(이혜정 외, 2014). 그러한 측면에서 환류 체계도 학습부진요인에 따라 구체화되고, 1년 단위가 아닌 학습부진요인 해소의 시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2. 현장교사 인터뷰를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

학교교육계획서 분석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일선 학교 대부분은 담임 중심의 ‘학력 책임지도제’를 학습부진학생의 지도 및 지원의 기본 틀로 운영하고 있다. 학습부진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시 지역 8개 학교, 군 지역 8개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담당 및 관련 업무 교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들의 평균 교육경력은 12.8년이었으며, 학습부진학생 직접 지도 경력은 11.6년으로 교과 전담교사를 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학급 담임교사를 했을 때에는 모두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내용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 학습부진학생 진단 체계, 학습 및 다중 지원 체계, 환류 체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에 대한 것이었다.

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교사 인식

학교 현장에서 학습부진학생을 만나는 교사들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 배경, 가정 배경을 학습부진의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역별, 학교별로 학습부진학생의 편차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 대부분이 가정적·지역적 배경에 따른 학습부진 발생의 요인을 지적하였고, 특히 농어촌 학교나

원도심 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교사는 농어촌 교과서를 달리 만들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였다.

“제가 작년에 ○○군에 넘어오고, 그 전에는 △△시에 10년 있다가 □□시에 12, 13년 있었거든요. 근데 시골로 갈수록 진짜 △△시보다는 □□시가 더 그렇고, 시내(원도심) 쪽에는 모두 공동화 되서 신도시 아파트로 애들이 다 빠져 나가고 진짜 원주민이나 오래 살았던 애들은 정말 더 처지거든요. 거기도 교육복지학교를 8년 했는데 학습부진학생 수가 그랬어요. 12학급이었는데 한 반에 한 17명에 학습이 부진한 애가 대 여섯 명 정도...” - G교사

“저는 10년차까지는 △△시에 있었고, ○○군에 넘어 온 게 3년차 되는데, △△시에 있을 때는 거의 그 아이들 중에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아이들이 한두명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항상 부진아였어요. 그 아이들을 집중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해왔고, 그렇고 그런 아이들은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봐 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군으로 넘어오니까 아이들을 다 봐줘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저학년 아이들은 한글이 안되서 힘들고, 이해력이 없어서 힘들고, 본 게 없어서 힘들고, 모든 정보를 선생님에게 다 얻어가야 하니까. ... 학습부진의 원인이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다양하다고 보는데 먼저 시골에 갈수록 외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작은 학교지만 한 학급에 7~8명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많이 낳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라고 이 집은 아이가 5명이거든요. 근데 엄마도 직장만 다니죠. 촌에 양파 밭에 일하러 가고, 김치 공장에 다니고. 이러니까 애들이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애들 엄마는 한글을 모르기, 우리말도 모르지, 엄마가 애를 가르치지 못할뿐더러 애도 우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애부터 일단 들어오면 학습부진이 되고 ... 촌으로 갈수록, 그리고 도시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이 모여 있는 곳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할머니가 애를 키우고 있다든지, 할아버지가 애를 키우고 있다든지 이런 애들은 집에서 지도가 안되니까 부진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시골로 갈수록 이런 아이들 수는 더 많고,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 학습부진 아이들이 시골에 많을 수밖에 없어요.” - H교사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초등학교 특히 집에서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일단 학교에 들어오거든요. ... 부모님이 좀 집에서 이제 1학년이니까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나면 완전 엉망이에요.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새벽 4시까지 엄마가 게임을 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보내요. 자기가 늦잠을 자면 아들 다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애가 학교를 안 오면 엄마가 늦잠 자 가지고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 아이 오빠도 제가 담임을 했거든요. 지금 6학년인데 그 애도 부진아예요.” - D 교사

“저희는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좋은 편이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할머니가 키우는 가정도 있는데, 작년에 저희 반 남학생 한 명만 부모님이 아무도 안계시고 할머니 혼자 키우시는데 그 학교의 학구 내에도 어려운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사시면서 아무래도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도를 같이 해도 아이가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하고자하는 의욕도 없고 그게 자꾸 누적이 되는 것 같아요.” - M교사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가정적인 요인이겠죠. 가정적인 요인 때문에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하고, 학생이 어릴 때부터 학습결손이 누적되기 때문에 고학년이 될수록 더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 O교사

“이 동네는 부모들이 전부 다 농사짓거나 아니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오후에 거의 방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방과후 수업을 오후5시까지 해서 보내지만, 그 이후에는 방치가 되고, 또 학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 이후 시간은 거의 놀거나 아니면 TV, 핸드폰에 의존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학습습관이 전혀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숙제를 내줘도 안 해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6년 동안 이미 고착이 된 것 같습니다. ... 아무래도 부모님이 신경을 쓰는 학생들은 좀 낮고요. 한 7명(학급의 전체 학생 수는 13명) 정도는 오후에 공부방이 있거든요. 공부방을 보낸단지 부모님이 이제 신경을 쓰는 경우는 낮고요. 2명은 편부가정이고, 한명은 조부모 가정이고, 나머지 3명은 부모님이 맞벌이 하고 이러다보니까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 P교사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농어촌 교과서를 달리 만들어야 한다고 저희끼리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 K교사

심리정서적인 부분이 학습부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복지 측면에서의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접근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저희 반도 학습부진, 기초부진 아이들을 보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사실은 상담실하고, 프로그램에서 그런 쪽으로 더 집중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ADHD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애들이니까. 학습에 대한 이해, 인지나 흥미가 전혀 없고, 집에서조차도 부모님들도 공부는 못해도 되고, 학교생활만 좀 잘했으면 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집에서 일절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적인 부분은 부진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이 안 되니까 수업 자체에 집중이 안 되고, 자기 집중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업을 세 마디만 해도 저희가 잔소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아이들도 사실은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인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가정이나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보면 부모님이 바쁘시고, 편부, 편모 가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A교사

이 외에도 학습부진의 요인을 과도한 학습량이나 담임교사의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책무성과 전문성 부족 등 학교에서 찾는 교사도 있었다.

“학교 요인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5, 6학년 담임을 하면서 느낀 것이 지금 교육과정이 학습량이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 정해진 차시에 나가야 될 수업과 각종 행사들 때문에 저희가 나가야 될 진도의 범위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한 시간당 수업해야 될 수업량이 과도한 건 사실이에요.” - P교사

“저희 학년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교과서 분량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 I교사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습부진이) 저학년 때부터 누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담임 선생님의 책무성도... 대부분 열심히 하시는데 또 안 그러신 분은 또 간혹 그런 부분을 또 제가 무시는 못하겠더라고요.” - K교사

“가정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투입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선생님이나 지도 선생님의 적극성이겠죠.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정말로 열심히 지도하시면 효과가 당연히 날 것이고, ... 담임 선생님은 바쁘니까 일하고 학생들한테는 학습지 주고, 공부방 시간에도 그렇게 하는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또는 선생님들의 열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P교사

1학년을 중심으로 저학년 학생들의 기초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1학년 입학초기 학생들에 대한 학습 준비도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돌봄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이 부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1학년 학습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 입문기 기초학습은 이후 학교생활에 있어서 학생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저희학교 아까 1학년인데 부진아가 있다는 이유가, 그 애가 지금도 글자를 몰라요. 지금 6개월이, 1학기가 됐는데,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 자기 이름을 쓰는데도 한 석달이 걸렸거든요. 병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글자를 가르쳤더라고요. 거기 나온 애들이 다

글자를 알고 올라왔어요. 애가 유일하게 모르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선생님, 애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 1학년부터 부진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면 2~3학년 올라가서부터 더 힘들 건데, 말귀를 못 알아듣거든요. 애는 9명 전부 얘기하면 그 애 혼자 딱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 전부다, 1학년도 눈치가 있어서 전부 그 애 쳐다보고, ‘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 D교사

“초등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한글을 못 댄 애들, 보통은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1학년 딱 들어갔더니 3월 달부터 알림장을 써오거든요. 근데 애가 한글을 모르니까 알림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애는 도벽도 좀 있고, 좀 불안한 애였는데, 알고 봤더니 엄마가 1학년 때 한글을 모르니까 새벽 2시까지 애를 잡았대요.” - E교사

“1학년부터 한글이 제일 많이, 지금 도구교과라고 하시면 한글이랑 수학이잖아요. 근데 그 1학년부터가 진단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두명 있다고 치면 그 아이를 선생님이 집중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학부모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는 너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라. 근데 학부모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도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약간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마음을 먹으면 엄마가 관리를 하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할 수 있지만 농어촌 학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 1, 2학년은 학습부진지도 자체가 거의 없어요. … 저는 저학년으로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어, 수학이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 1, 2학년에서 관리가 많이 안돼요.” - H교사

“1, 2학년 아이들을 보면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이 제가 진짜 ○○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갔더니 너무나 학력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1, 2학년 아이들은 기초학습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읽기, 쓰기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에 있는 부모님들과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또 결손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 지금 들어오는 1, 2, 3학년 아이들은 학력이 정말 격차가 나서 기초학습부진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받아쓰기를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에서의 연계라든지 부모님의 관심도 그런 부분에 좀 많이 힘들어서 저희도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협의라든지 학교의 여러 가지 의논을 할 때, 항상 기초학력이 제일 우선이다. 1, 2학년 그 부분에 제일 많이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 K교사

“저는 1학년을 하면서, 1학년이라고 해도 27~8명씩 들어오는데 개네들이 진짜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아이들이 한 두명씩 있는데, 정말 지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에도 지도하고 있거든요. … 학교 이름 중에 한 글자도 못 쓰더라고요.” - I교사

인터뷰를 통해 학습부진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았을 때, 교사들은 학습부진의 요인을 가정 및 지역적 배경, 심리정서적 요인 등 학습 이외의 영역에서 발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이미 학력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후 학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가 단순히 학습의 양 혹은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 학습부진학생 진단 체계

학교에서 학습부진학생을 판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진단 평가지를 활용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18명의 교사들이 모두 동일한 절차를 말했다. 학습부진학생 판별은 3~6학년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평가지를 활용하고, 2학년은 학교에서 제작한 평가지 활용해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학생을 학습부진학생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여기에 담임 추천을 통해 몇몇 학생들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런 진단 체계를 유지하며, 보다 다양한 형태로 진단을 시도하는 예도 있었다.

“진단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를 낼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냈냐면, 기왕 교육청에서 주는 자료(평가지)는 받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전 년도에 지필평가 시험 친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판정을 내렸거든요. … 이전 년도에 학업 성적을 수행평가나, 지필평가 친 것을 가지고 작년도에 애가 못했으면 올해도 못하는 게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판별을 많이 했습니다.” - B교사

“우리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 인터뷰나 아니면 학생 심리검사, 꼭 심리검사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 뭐 애들 그런 것 있잖아요. 어항 속에 물고기 그리기. 뭐 그런 간단한 애들 그림,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그려 가지고 이 아이가 뭐 가정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교육청에 진단지 그 시험지로 한번 쳐서 이게 그 정도 되는구나, 뭐 이런 사실을 종합적으로 애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자라고 계획은 되어 있어요. 일단은 계획을 해가지고 자료를 다 만들어 놔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게 되더라구요.” - E교사

“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랑 진짜 안 되는 아이까지 싹 몰아가지고 Wee클래스에서 진단검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가지고 한 시간 동안 아이들 상담도 하고, 심리검사지도 하시고, 그런 활동지를 가지고 어떤 것에 문제가 있고 등 나중에 막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 근데 점수만으로 하는 지금 현재의 진단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학교 진단 체제가 마음에 드는 게 예를 들어, 진단평가 결과가 60점(부진학생 판별 기준 점수)이지만 개는 불안한 아이거든요. ... 너는 60점이기 때문에 끝내라 너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까지 싹 다 몰아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는 경향이 있어요.” - H교사

현장의 교사들은 한 번의 진단평가가 아닌 다양한 진단활동 또는 보다 폭넓은 형태로 학습부진학생들을 이해하기를 원했다. 보다 많은 정보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인터뷰에서도 드러난다.

“학습부진 요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습부진학생 심리정서적 상태를 알기 위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으로) 그림 그리기 등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필평가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투입하거나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학교에 투입한다든지, 개들을 모아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 E교사

“학교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학습부진 아이들이 학습 자체에 부진이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게 종합적이거든요. 가정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부진의 요인이 여러 군데서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의 정확한 부진 요인이 뭔지 그것부터 진단이 되어야 학교에서 이렇게 개한테 맞는 어떤 지도 프로그램이 나와야 하는 거지. 무조건 우리는 애가 학습이 안 되네, 무조건 공부만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애가 정확하게 학력 향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 우리 학교 연구부장이 아는 말이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진단평가)를 일단 쳤다 그럼 개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진단 프로그램을 거쳐서 정확한 요인이 뭔지 먼저 분석을 해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교사에게 그렇게 해주면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 G교사

다양한 진단활동 프로그램을 사용했던 아래 E교사의 인터뷰에 의하면, 한 번의 진단평가를 통해 학습부진을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진단도구를 활용하는 진단활동 체계는 교사에게 학습부진학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해 보다 폭 넓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단활동은 한 번, 그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교사들이 한 달 동안 관찰한 것을 가지고 일 년 동안 계속적으로 써요. 진단하고. 근데 사실 저도 이전에 진단평가를

해보니까 보통 이제 채점을 하다보면 점수로 그 아이를 이제 판정하게 되잖아요. 아 애는 통과, 애는 미달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진단활동을 해보니까 물론 교사는 좀 피곤해요. 계속적으로 뭐 활동 하나 시킬 때마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조금 있긴 한데. 근데 뭐라 할까 아이들을 교사 스스로가 등급화 시키지 않는다. 이 아이는 이 부분을 조금 잘하고, 이 아이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요.” - E교사

앞서 학교교육계획서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도 3월 진단 평가지를 통하여 학습부진학생을 판별하고 지원한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습부진학생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들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표준화된 평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진단활동을 통한 학생 이해는 학습부진학생을 이해하는 새로운 안목을 제공할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진단활동은 학습부진학생 뿐만 아니라 학습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학생들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 학습부진학생 학습 및 다중지원체계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흐름은 90년대의 담임 책임지도와 2000년대의 학교 체계를 통한 지원, 2010년대 다중지원체계 등 뚜렷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과 다중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알아보려 하였다. 학교에서 학습부진학생의 학습 지원을 하는 형태는 담임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형태와 학습부진학생을 한 장소에 모아 지도하는 이른바 ‘공부방’의 형태가 있었는데, 이 두 형태를 동시에 활용하는 학교도 있었다.

“학생들 대상으로 방과 후에 뭐 수학교실이나 여름방학 중에 독서캠프 같은 것을 좀 더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이 그런 진단 시스템(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에 있는 자료나 그런 것들 활용해서가지고 틈틈이 지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A교사

“(학습지로 지도하는데) 학습지 풀어라 해도 재미없거든요. 내일되면 또 까먹고, 재미없어요. … 이제 그냥 학습지 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보고, 외워라 하는데 애들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자기들도 맨날 이거 풀면 알 듯 말 듯 한데도, 넘어가 버리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강사를 불러가지고 교실을 만들어주고, 애들 모아서 교구도 넣고 했는데도, 이게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올해는 이게 예산도 많이 줄어든 마당에 (담임) 책임제로 다시 돌리자고 해서 올해는 다시 담임책임제로 돌리고 있는데…” - B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업무를 보시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학습지밖에 없어서 학습지를 하고 외부강사를 시청에서 돈을 좀 지원받아 가지고 외부강사를 고용해가지고, (학부모) 동의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대부분...” - C교사

“특히 놓여촌 학교 선생님들은 일이 너무 많으시니까, 거기에 한 30~40분을 앉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습지 내놓으면 솔직한 얘기입니다. 학습지 내놓고 선생님 일하면서 ‘네가 풀어라’ 해놓고 이제 일하고, 모르면 ‘이거 이렇지’하고 또 일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옆에 딱 앉혀놓거든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너 풀어라’ 나는 일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 D교사

“부진아 지도를 할 때 느꼈던 게 애들은 낮은 학습 자존감 때문에 수업 중에 뭔가 문제를 푼다거나 수업 활동 자체를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 남겨서 지도를 한다는 게 보통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부진 자료를 복사해서 A4 종이에 출력해서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푸는 거죠. 일종의 지필평가잖아요. 그서도 그런 애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남기면 하다가 튀고(도망) 싶어 하는 거예요.” - E교사

“부진학생지도는 보통 학교마다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남아가지고 부진학생으로 진단된 애들 지도 시키는데...” - G교사

“이 학교에 제가 왔을 때, 우리학교에서 부진아 지도는 담임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학 중에 학력캠프를 하는데, 그 돈도 학교 예산이 아니라 시 지원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전 학교에서는 지도시간도 있고, 수당도 있고 그랬는데 이 학교에서는 그건 돈도 없고 담임이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담임들이 보통 방과 후에 남겨가지고 많이 하시던데 실제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차를 타고 가야하는 것 때문에 지도가 거의 안 되고 있고,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담임하고 싸우거나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이 부진아 지도하려다가 애가 학교를 안 오려고 한다. 우리끼리 완전 싸움이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도 있어요.” - I교사

“저희 학교도 비슷한데 담임 책임 지도하에 알아서 재량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 J교사

“저희 학교는 일주일에 시간 정기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사실 하면 한명만 데리고 하면 조금 효율적일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명을 데리고 해야 하는데, 이 한 시간 해가지고는 한 명도 이해를 못시켜서 시간은 한 시간 잡혀 있는데 사실상 드는 걸 보면 최소 세 시간, 네 시간 해야지, 한 명당 한 시간 이상은 들여야지 그나마 한 절반이라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 K교사

“저희는 진단평가 치고 나서 부진학생들한테 신청서, 동의서, 방과 후에 지도하겠다는 동의서에 모든 부모님들이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부진학생인데 지도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방과 후에 남겨서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수업시간 틈틈이, 아침시간이나 수업시작 하기 전이나 이럴 때 조금씩 지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 M교사

“일주일에 무조건 담임이 두 시간 지도하게 되어 있으니 방과 후에 지도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방학 때 집중적으로 일주일동안 캠프 하듯이 붙들어 놓고 하루 종일 시킵니다.” - P교사

학습부진학생의 지원은 대체로 담임교사가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으며, 학습지를 풀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교의 예산 사정에 따라 지도 수당을 지도하는 학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구체적인 지도 계획 없이 ‘담임 책임’만 강조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앞서 학교교육계획서 상에도 학습부진학생 지도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보여진다. 학생 지도 방법에 있어서도 학습지에만 의존하는 현행의 방식은 학생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으나 교사의 입장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교사의 입장에서도 학생의 입장에서도 ‘재미없는’ 지도 프로그램은 학습부진학생들에게는 오히려 학교에 대한 거부감을 더 높게 만들고, 교사의 입장에서도 지도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습지원 외에 학습부진학생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교내외 자원을 연계하는 이른바 ‘다중지원’ 체계에 대한 실태와 사례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리학교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우리 반은 아니고 옆 반인데 애가 자살충동을 엄청 느끼는 것예요. 학교 오면 난 죽을 거다, 그냥 뭐 가위를 목에다 대기도 하고, 2학년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니다 다를까 학습부진이에요. 완전 부진이에요. 그래 가지고 선생님이 오후에 남겨 가지고 2학년이 할 수 있는 덧셈, 뺄셈 이런 을 계속 가르쳤어요. 가르쳤었는데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게 지속력이 없는 거예요. 다음날 되면 또 까먹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개가 너무 자살충동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부모님을 불러서 상담을 했는데, 부모님 생각이 열린 분이 아니에요. 안 되서 선생님 나름 할 수 있는 그 아이에 대한 심리치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선생님이 다 수용했어요. 그래 가지고 애가 학교에 오면 편한 거예요. 집에서는 힘들다가. 이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교육청 Wee클래스에 신청을 했는데, Wee클래스 쪽에서는 진단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사무소에서는 치료까지 다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신청해놓고 가정방문을 했었거든요. 가정방문 하면서 엄마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그때는 마음이 좀 편해지셨더라고요. ... 그 집엔 애가 다섯이나 있어요. 아이 넷에 현재는 임신상태고. 그래서 '애 키우는데 힘드시죠?', 뭐 이러면서 얘기를 죽 나누니까 엄마가 '아, 그렇죠. 잘 해주고 싶은데 잘 안돼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학습이라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학습이 안 되는 원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마음에 불안이 없고, 괜찮아지면 학습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 E교사

"교장 선생님이 바뀌셨는데 상담 쪽에 워낙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가지고 ... ○○교육지원청에 계신 상담선생님들이 저희 학교에 한 번씩 다 방문하실 정도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 아이들이 상담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생활 쪽에 있어서 울분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생활(태도)이 많이 좋아졌고요.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쪽에는 효과가 많이 없어요. 고학년은 오히려 학습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우울하다, 하기 싫다. 이런 마음들을 돌려주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시간 가지고는 부족하기는 합니다." - H교사

"저희학교에서는 담임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Wee클래스 상담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조연해주는 특수반 선생님하고, 그 다음 교감선생님하고, 특히 저희학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거든요. 그래서 교육복지선생님하고 다 모여 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한 다음 교감선생님이 대표로 전화해서 한 번 의뢰를 하는 게 어떨냐. 애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계선상의 아이들이 문제거든요. 확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제일 골치 아픈 애들이라서 담임이 책임지고 부모한테 전화하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 B교사

"저희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두드림학교로 사업 지원이 되어 가지고, ... 동학년 선생님들이 같이 지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학습 이런 것 보다 정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어, 수학이 안 되면 리코더도 못 불고요. 그럼도 막 6, 7살처럼 그러요. 그래서 학습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것으로 가보자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리코더도 몇 시간, 그럼도 몇 시간. 되게 재밌어 했어요. ... 세 명 앉혀 놓고 선생님이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시간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미술 같은 것도 어려운 것을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그려라’, 간단히 기본적인 것부터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니까 또 그 시간 너무 재밌어 하고, 그 다음에 국어 이런 것도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에 있는 것을 활용했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동기부여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이들한테는 학습으로는 안 와 닿으니까 굉장히 재밌어하고,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 자기들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니까 그 시간에 너무 재밌어 하고, 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존심, 자긍심 이런 걸 갖게 되고, 저희는 올해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애들이 학습적인 것, 3학년 교과는 못 따라올지언정 어쨌든 뭔가를 자기가 알아서 진득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뭔가 해야겠다고 재미를 느끼는 것까지만 해도 저희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 담임 선생님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학년에 몰려 있는 애들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나누어서 지도를...” - A교사

위의 E교사의 사례에서는 학교차원이 다중지원체계라기 보다는 담임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학습 외의 접근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H교사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외부 자원을 연계한 사례이고, B교사의 학교는 교내의 전문 인력인 전문상담사와 특수교사, 교육복지사 등을 활용한 다중지원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A교사의 사례에서는 지도의 방법에 있어서 동학년 협업 체계, 내용에 있어서 심리정서적 접근 방법을 채택한 사례다. 네 명의 교사 모두 인터뷰 과정에서 학습 외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학교에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다중지원체계가 형식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도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참여 교사 모두 공감했으며, 학교 내에서 그런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라. 학습부진학생 지원 환류 체계

학습부진학생을 선별하고, 학습 지원이든 그 외의 지원이든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상 학생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학습에 어려움이 없는지,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습부진학생 지원 이후 어떤 환류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제가 봤을 때 타이트하게 하면 반에서 (학습부진학생) 7~8명,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융통성 있게 ‘너 이거는 할 수 있잖아.’, ‘한 번 더 해 보라.’, ‘재시험 한 번 쳐보자.’ 억지로 끌어올리면 반에서 1~2명 정도로 딱 내려가는데, 실제로 이제 부진아 통계라는 게 뭐, 연말 되면 없어졌다가 연초 되면 확 드러나는 고무줄 통계처럼, 애들이 그렇거든요. … 그러다 보니 학습부진이 누적되어가지고 6학년이 되니까 이제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 B교사

“이때까지 계속 돈 투입해가지고 외부강사하고 담임이 가르쳤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1%대라고 생각하거든요. … 정말 이게 효율적인 면에서 투입된 것에 비해서 산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생각을 한다면 회의가 많이 듭니다. … 1년 단위로 나누어 가지고 부진을 판별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 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 C교사

“어디서부터 누적 되어서 잘못되었는지를 잘 판단할 수가 없다는 말들이 많아요. 올해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가지고 … 다음 담임 선생님한테 넘겨서 자료를 꼭 공유해주세요 … 근데 학년이 바뀌고 담임 선생님이 바뀌고 나면 리셋이예요. 자료를 받지만 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100% 나한테 다가오지 않거든요. … 담임 선생님이 연속해서 6학년까지 죽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지도 방법도 바뀌고,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 H교사

“(1학년) 한 명이 한글이 안 되는 애가 있었는데 1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남아서 반복적으로 시켰는데 다음날 오면 전에 배웠던 것 또 까먹고, 1년 내내 잘 안 되어가지고 한 명이 그대로 모른 채 올라갔는데, 2학년인 지금 현재 담임 선생님께 여쭙보니까 아직도 한글이 안 되가지고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 I교사

교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고무줄 통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이 ‘특정 점수를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반복적인 문제 풀이 기술 숙달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학습부진학생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학습부진학생이 가진 학습 장면에서의 어려움을 해를 거듭할수록 ‘누적’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서 학교 단위의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공식적인 환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례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학습부진학생 지원의 단위를 1년으로 한정시켜 버리면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환류 체계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지 못한다. 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학습부진학생 이력제’나 ‘학습부진학생 지도 카드’ 등을 작성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교사들에게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환류 체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있다.

마. 학습부진학생 지원의 저해 요인

교사들이 학습부진학생을 지원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다.

“요새 까칠한 학부모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정 안 하죠. 자기 아이가. 우리 반 애도 글자 모른다고 ‘어머님, 좀 가르쳐주세요.’하면 ‘우리 아이 아는데요.’ 이렇게 해요. 너무 몰라요. 자기 아이를.” - A교사

“어머님한테 전화를 하면 우리 애 낙인 시킨다고 동의를 안 하세요. 그럼 이제 ‘학원 보내느니 제가 한 번 가르쳐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억지로 끌고 오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어머님들이 남아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공부 못 하는 애로 다른 친구들한테 낙인 찍힐까봐 상당히 꺼려하시거든요.” - B교사

“1학년 입학하면 한 해에 서른 명 조금 안 되게 입학하는데, 한 반에 한 두 명 정도는 거의 한글을 모르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학교에서 학원 같은 선행학습 하지 말고, 학교에 오면 선생님들 하고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창의성 교육을 했다. 그리고 많이 놀아주고, 많이 책 읽어주고 했다. 그런데 학교에 오자마자 알림장 쓰고, 국어에는 기억 나은 하지만 수학은 계속 글자 읽으면서 문제 풀고, 쪽수도 1학기 때 50까지, 60까지 배우기는 하지만 교과서도 실제로는 134쪽을 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불만으로 토로하시더라고요.” - I교사

“4학년에 남학생 한명이 굉장히 학습부진이 심한데 진단평가를 치면 아예 시험지를 안 푸는 거예요. 안 풀면 0점도 나오고 그날 어찌다가 맞으면 5점, 9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예 본인이 풀지를 앓거든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과시간 중에 다른 아이들이 있으면 전혀 뭘 하려고 하지 않는대요. 방과 후 지도를 하려면 학부모님들께 신청서를 보내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아이들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런 걸 아예 챙겨서 보내주시지도 않고, 담임 선생님이 따로 연락을 하시면 진짜 몇 번 전화를 해서 겨우 통화가 될 정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도를 하고 싶어도 그 자체가 좀 힘들고. ... 프로그램 같은 것에 참여를 시켜서 그 아이를 좀 더 복돋아줄 수 있고,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는데 일단 가정에서 아예 그런 것을 거부하시고, 소통이 잘 안되니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 M교사

“가정환경이 어떤지 파악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기초조사 할 때, 부모님 직업, 가족관계 이런 거 정확하게 안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 반에

부진학생이 자기 기초조사서에 엄마, 아빠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가정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언니도 따로 살고 있고, 조금 불안한 상황이었고, 어머니가 늦게 일하고 아침에 주무시고 애가 갈 때, 못 보고 이런 상황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그렇게 연락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 I교사

우선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사들은 학습부진학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정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낙인을 우려해 학습부진학생 지도 프로그램을 회피하는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을 교사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경우, 가정과의 소통 자체가 어려운 경우 등 그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 내에서 교사가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할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주 1~2회지만 그 1~2회 가지고 사실 40분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아이들하고 좀 그 아이의 학력을 바로 향상시키기도 힘들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할애할 그런 여유를 충분히 제공을 못 해주잖아요. 학교에서도, ‘나는 지금 부진아 지도할 테니까 지금 이 시간은 업무 못 한다.’ 이게 안 되니까 ... 시간적으로 부진아 지도를 하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 M교사

“일단 지도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그 학생(학습부진학생)을 자주 지도해주고 1:1로 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무래도 그런 게 부족하고, 오후에도 항상 월례회나 화요일은 직원연수, 이런 식으로 잡혀 있으니 ... 사실상 학급정리도 안 되고 다음날 학습자료 준비는 아예 꿈도 못 꾸고, 일주일 중에 딱 하루 비는 날 그럴 때 보통 부진아 지도를 잡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확보하기가 여러 업무 때문에 힘들니까 선생님들은 지도 시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고학년 선생님들은 더 그러시고요.” - M교사

“고학년 선생님들은 수업이 3시에 끝나고 청소지도 하고 나면 3시 반이고 그러고 나서 보충지도 한 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을 하고 나면 또 학교가 12학년이다 보니까 본인 업무들이 다 있고. 그 분이 제일 아쉬워요. 늘 제일 큰 숙제고, 고민인데 시간적인 여유를 어떻게 확보를 해주셨으면.” - L교사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들 대부분은 학습 지도 이외의 업무들로 인해 안정적으로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농어촌 학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도시의 학교보다 적은 수의 교사가 거의 동일한 양의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도 시간 부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선생님들은 정말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당장 업무는 처리해줘야 하는데, 부진 학생은 보이고, 그 학생을 잡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 업무량이 많은 농어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 못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P교사

“도시하고 농촌하고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여기는 우리가 봐도 뭐 어떻게 해줘야 하나 막막한 마음이에요. ... 심각한 아이들은 1~2명씩은 있어요. 개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학습장애 쪽의 애들이 아닐까. 지능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장애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 그 아이들이 가르쳐서 될 아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는 아니지만 난독증 이런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애들. 학교 현장에서는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습 장애나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판별 도구가 없잖아요? 선생님은 막 죽어라 애들 가르치는데 다음 날 또 모르는 거예요.” - H교사

H교사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났지만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판별 도구나 전문적인 지원을 연결할 수 없어서 단순히 학습부진학생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었다. 아래 L교사와 P교사의 사례를 보면,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지금 (학급에) 2명이 전 교과 부진인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ADHD이고, 다른 애도 마찬가지고요. 여학생은 1학년 들어왔을 때도 거의 뭐 짐승처럼 돌아다녔다는 걸로 봐서 치료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올라가니까 학습은 앉아 있는 것도 힘든 아이였는데 ... 주의력 결핍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수업시간에 앉아서 있는데 정신이 나가 있어가지고 집중을 아예 못하고 그런 경우라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잡아가지고 앉혀서 시키면 이해를 좀 해서 진척이 있는데,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했을 때, ‘애가 지능에 문제가 있나?’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언어적 능력도 거의 평소에 말도 없고 그런 상태여서...” - L교사

“저도 지금 10년차인데 굉장히 (학급의 학생들) 특이한 것 같습니다. ... 학생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ADHD도 좀 있으면서 ... 오죽했으면 제가 학급 배치할 때, 시험 대형 아시지 않습니까? 딱딱딱딱 나눠진 것. 그러니까 모둠활동이 안 되는 거죠.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그 고위험군 학생도 두 명 있습니다. 그 학생 두 명도 학습부진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 P교사

현장교사들은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가정과의 연계 곤란, 과도한 업무에 따른 안정적인 지도 시간 부족, 전문적인 진단과 지원의 부재 등을 꼽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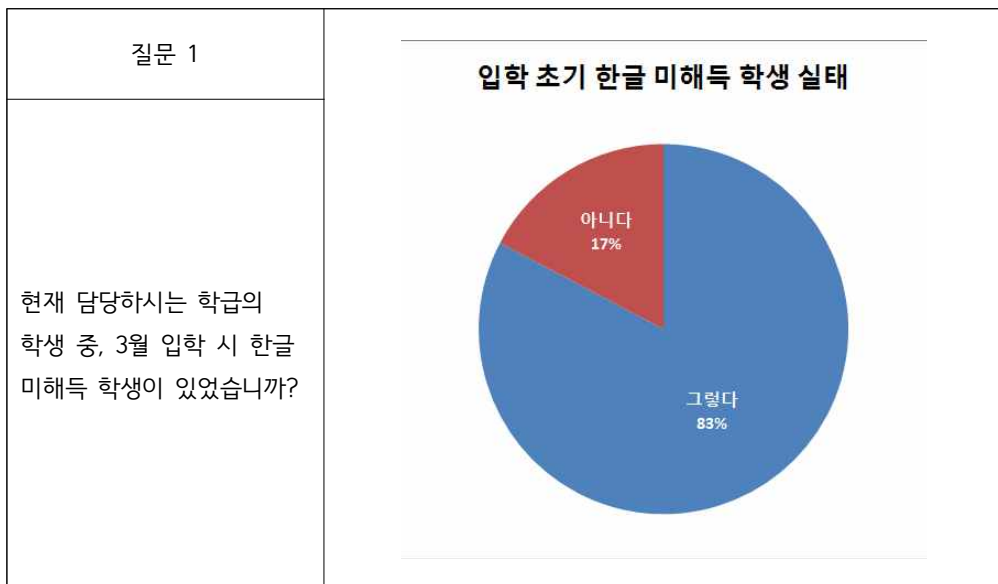
3. 초등 입문기 학생의 학습 및 지원 실태

초등학교 입문기에 발생하는 학습격차는 학년과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박순경 외, 2015). 초등학교 입문기 학생의 학습 및 지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8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설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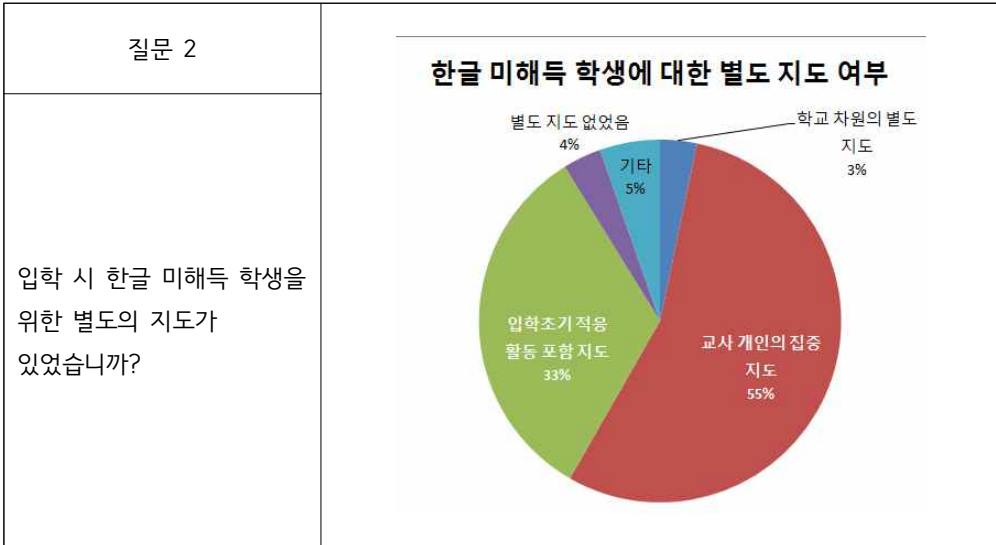
- 1) 입학 초기와 9월 현재 1학년 학생 한글 이해득 실태
- 2) 한글 이해득 학생에 대한 지도 실태
- 3) 기초 셈하기 실태
- 4) 입학 초기 학생 학습 진단활동을 위한 도구의 필요성
- 5) 입학 초기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자료의 필요성

나.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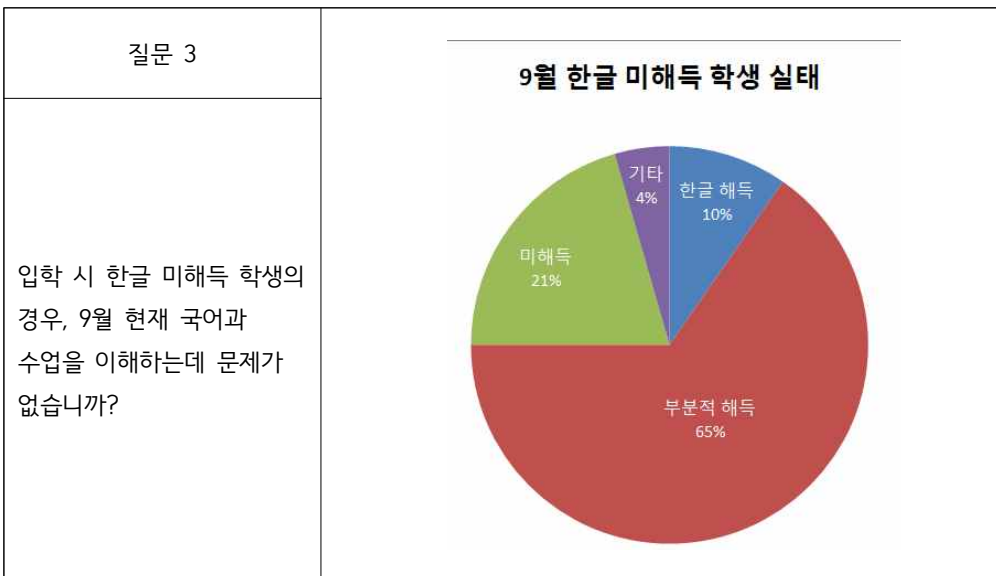
[그림Ⅲ-1] 입학 초기 한글 이해득 학생 실태

응답자 중 83%의 교사가 학급에 입학 시 한글 미해득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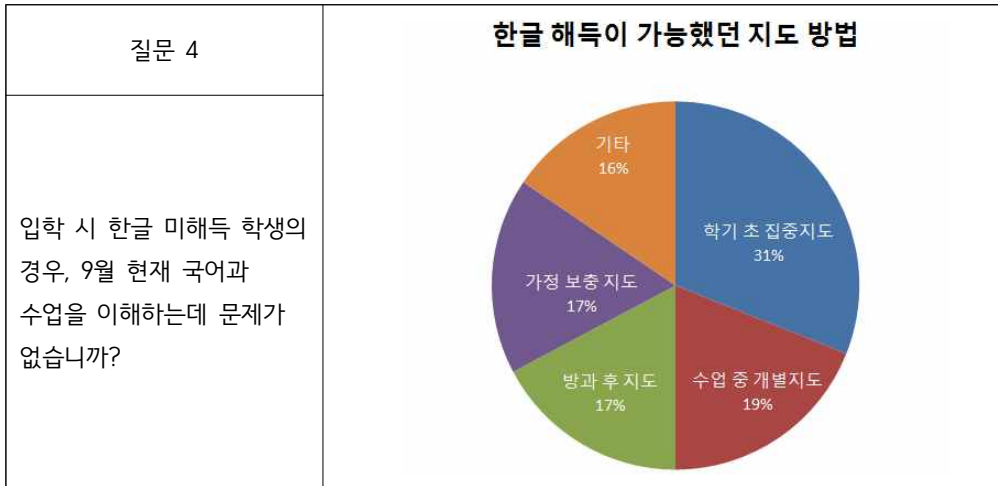
[그림Ⅲ-2] 한글 미해득 학생에 대한 별도 지도 여부

입학 초기 한글 미해득 학생의 지도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을 했다고 보다는 교사 개인의 차원에서 집중 지도를 했다는 응답이 55%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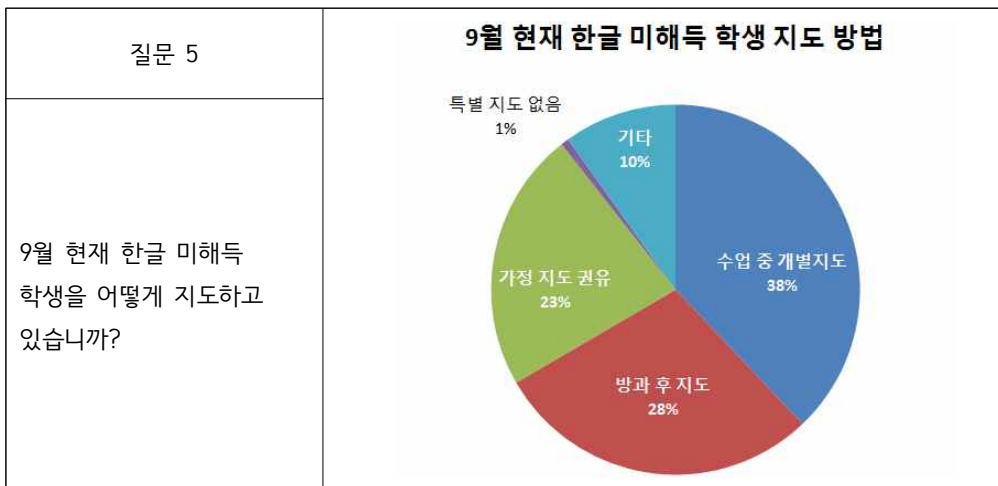
[그림Ⅲ-3] 9월 한글 미해득 학생 실태

3월 입학 초기 한글 미해득 학생 가운데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한글 해득이 된 학생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9월까지 한글을 해득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21% 정도였으며, 부분적 해득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65%에 이르렀다. 3월 입학 초기 한글 미해득 학생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한글 해득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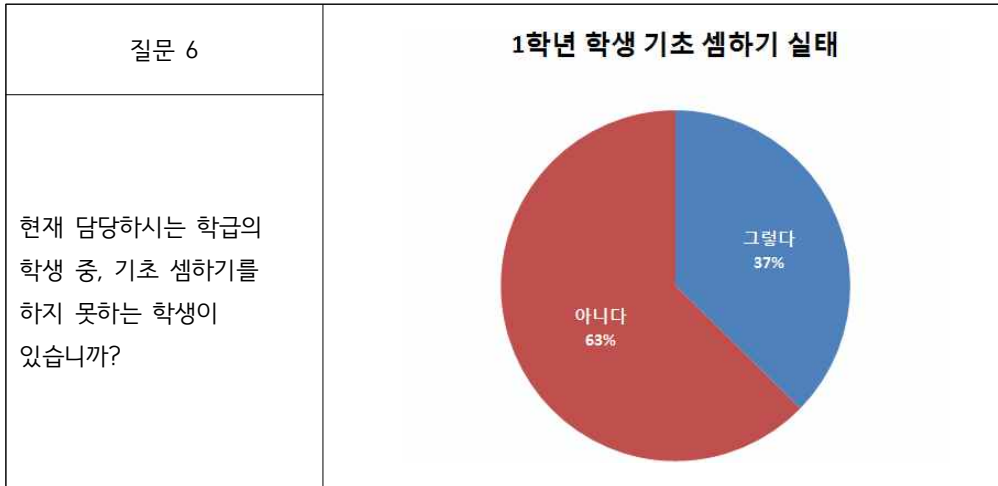
[그림Ⅲ-4] 한글 해득이 가능했던 지도 방법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한글 해득이 가능했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한글 미해득 학생들에게 사용했던 지도 방법은 학기 초 집중지도, 수업 중 개별지도, 방과 후 지도, 가정에서의 보충 지도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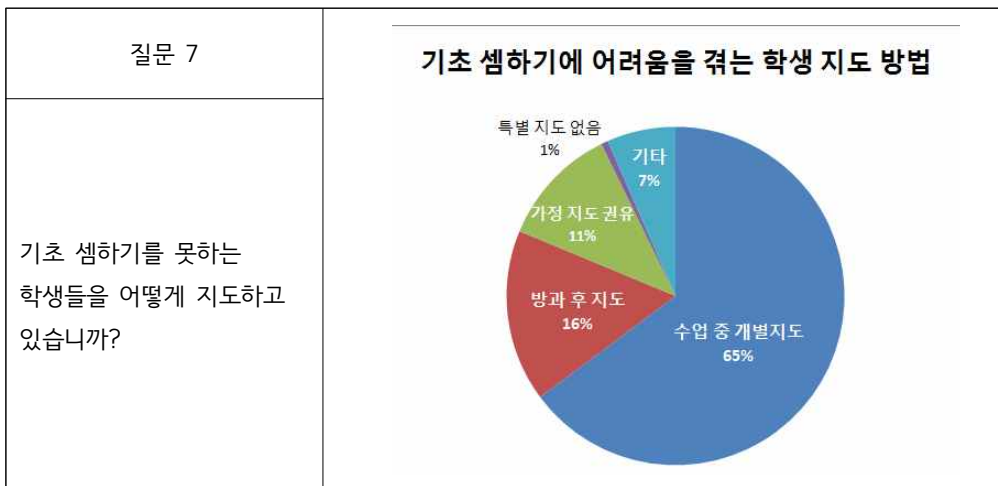
[그림Ⅲ-5] 9월 현재 한글 미해득 학생 지도 방법

9월 현재까지 한글을 해득하지 못한 학생들의 지도 방법에 대해 수업 중 개별지도, 방과 후 지도, 가정에 지도를 권유한다는 순으로 응답했으며, 특별한 지도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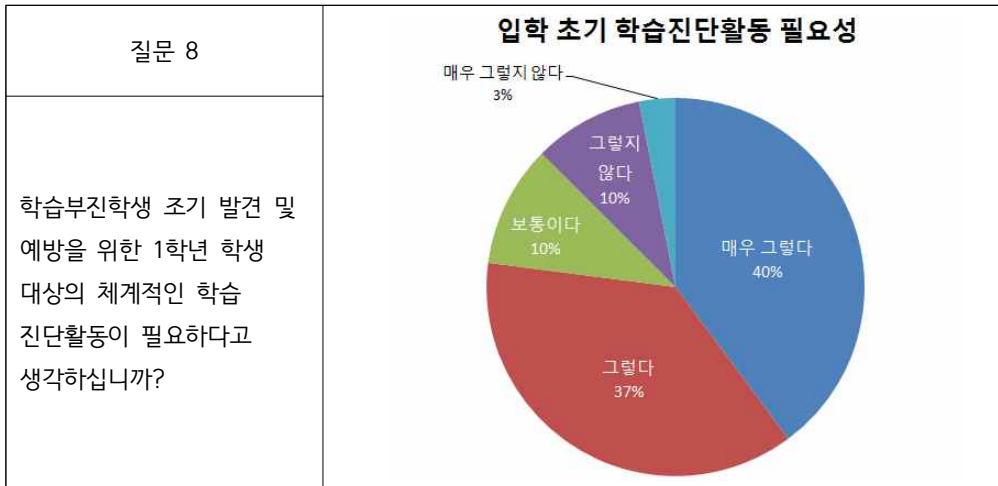
[그림Ⅲ-6] 1학년 학생 기초 셈하기 실태

현재 담당학급의 학생 가운데 기초 셈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3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글 미해득 학생 수에 대한 응답보다는 낮은 응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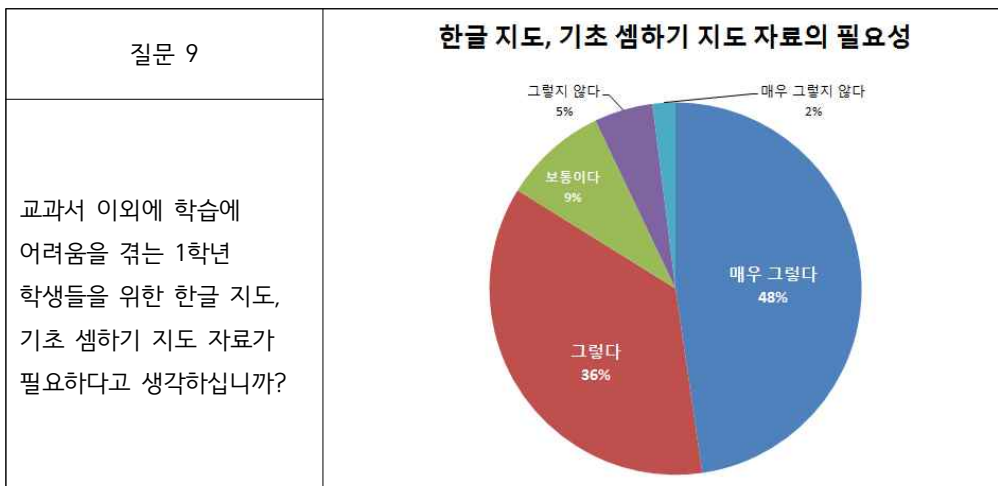
[그림Ⅲ-7] 기초 셈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도 방법

기초 셈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는 수업 중 개별지도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뒤를 이어 방과 후 지도, 가정에서의 지도를 권유한다는 순서로 응답이 나왔다.



[그림Ⅲ-8] 입학 초기 학습진단활동 필요성

입학 초기 학생들의 학습부진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 체계적인 진단활동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40%의 교사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37%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다 10%, 그렇지 않다 10%, 매우 그렇지 않다 3%로 각각 응답하였다.



[그림Ⅲ-9] 한글 지도, 기초 셈하기 지도 자료의 필요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1학년 학생들을 위한 한글 지도, 기초 셈하기 지도 자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8%의 교사가 매우 그렇다, 36%의 교사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9%,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가 2%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초등 입문기부터 한글 미해득 등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책에 있기 보다는 교사 개인의 지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게 되면, 한글 미해득 학생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접근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교사의 개인차에 따라 학습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3월 초에 한글 미해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학생은 9월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 학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글 미해득 학생이나 기초 셈하기가 안 되는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나타나는데, 역시 학교 차원의 체계와 대응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입학 초기 학생에 대한 학습 진단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77%의 교사가 긍정적인 반응 보였는데, 학습에 대한 진단활동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진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글 미해득 학생과 기초 셈하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과서 외에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학년 담임교사들이 정규 수업 내에서 기초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의 개별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경로의존성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 분석

1. 경로의존성

경로의존성은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가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폭넓게 인용되는 개념(어영경, 2010)으로 일정한 관행에 한 번 익숙해져 의존하면 후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으로 변하더라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윤석, 2015).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흐름이 90년대의 담임 책임지도, 2000년대의 학교 체계를 통한 지원, 2010년대 다중지원체계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계획서나 교사 인터뷰 내용을 분석했을 때, 이러한 정책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기 보다는 학습 영역에 국한된 학습부진학생 지원이라는 경로의존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진단과 지원, 환류 과정 및 초등 입문기 학생에 대한 지원에서 경로의존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 진단체계의 경로의존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학교교육계획서와 교사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진단 체계는 3월에 실시하는 진단평가에 의존하고 있었다. 교사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습부진의 요인과 상관없이 표준화된 지필평가를 통해서만 학습부진학생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진단평가를 통한 기준점 도달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지 학습자의 어려움을 입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경계선상 지능, 난독증을 포함한 학습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 검사지나 체계도 부족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Wee센터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한 의뢰도 쉽지 않다. 이는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교사들이 센터에 의뢰를 하거나 센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결국 학습에 국한된 진단은 학습에 국한된 처방과 지원을 가져오게 된다.

3. 학습부진학생 지원 체계의 경로의존성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은 ‘담임 책임’에 기초한 학습지 풀이 방식이 일반화 되어있다. 학교 단위의 체계를 갖추어 학습부진학생에게 접근하기 보다는 담임교사에게 일임된 학습부진학생 지원은 학습의 양이나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학습부진학생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접근 방법은 학습부진학생에게 학교에 대한 불편감을 더 높여줄 수밖에 없고, 교사에게는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 고학년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설정하기도 어렵다. 이럴 경우, 학습부진학생 지도는 ‘제도화된 방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일부 학교에서는 동학년 협업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학교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교내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지원 등 학습 이외의 영역을 포함하여 학습부진학생을 진단하고 지도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담임책임제’는 아직도 뚜렷한 흐름이었다.

4. 환류 체계의 경로의존성

인터뷰를 했던 교사 중 학습부진학생 관련 통계를 ‘고무줄 통계’로 표현한 교사가 있었다. 학기 초에 진단되었던 학습부진학생이 학기말이 되면 이른바 ‘구제’가 되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다음 학년도에 다시 학습부진학생으로 집계된다는 표현이다.

학습부진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습 장면에서의 어려움을 판단하고, 지원하는 시간적 단위는 모든 학교에서 1년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1년 동안 지원을 하고, 대상 학생의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 없이 다음 학년이 되면 다시 진단하여 지도하는 형식이다. 이는 학교 차원에서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정보를 다음 학년도 담임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은 교사 차원에서 구두로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기도 했던 ‘학습부진학생 이력제’나 ‘학습부진학생 지도 카드’가 학교 현장에서는 활용되지 않았고, 학습부진학생의 진단, 지도에 관한 자료들은 1년 단위로 사장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5. 초등 입문기 학생에 대한 지원의 경로의존성

초등 입문기 학생의 경우, 입학 이전부터 학습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보상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노력은 미흡한 상태이며, 교사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격적인 학습부진 진단이 시작되는 시점이 2~3학년이라고 본다면, 입학에서부터 진단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교사 개인의 노력이 없을 경우, 학습의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모든 교과와 기본이 되는 한글 이해특 학생에 대한 진단과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현재는 한글 이해특의 요인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접근 도구나 체계가 없는 상태다. 경계선상 지능이나 난독증과 같은 학습 장애 혹은 심리정서상의 문제에 기인하는 한글 이해특의 경우는 교사가 진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단순히 학습부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교육과정의 구조상 한글 지도 시간이 부족하며, 취학 전 선행학습을 통하여 한글해득을 끝낸 학생들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통하여 한글 해득을 하지 못한 학생은 학습부진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현재 초등 2~3학년 단계에서 시작되는 학습부진학생 진단의 시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했던 초등학교 3학년 진단평가 시점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초등학교 입학 앞둔 아동의 선행학습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이런 선행학습은 사교육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언론 보도³⁾에 따르면 전체 영유아 보육·교육비 절반 정도는 사교육에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지 중에 한글 학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상당 부분 그 책임 있다.

2000년부터 시행된 7차 교육과정에서 한글 해득은 6차시 배정이 되었는데, 이는 70%의 학생이 문자 해득에 도달한 것을 전제로 개발되었다고 한다(이경화 외, 2007).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4차시로 배정되었고, 2013년부터 적용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3단원(27차시)으로 보완되기도 했다⁴⁾.

초등 입문기부터 시작되는 학습의 격차는 학부모의 소득 수준 및 관심 정도, 도시와 농어촌의 차이, 다문화 가정 여부 등 학습 외의 조건에 의하여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초등 입학 초기 학생의 학습 준비 상태에 대한 진단과 지원이 필요하다.

3) SBS, 「영유아 10명 중 3명 학습지, 1명은 학원」, 2014.6.23.보도, 연합뉴스, 「영유아 사교육비 2조2천억…총 보육·교육비의 45%」, 2014.6.23.보도.

4)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최소 45차시로 늘어날 예정

V. 학습부진학생 지원의 방향과 방안

학교교육계획서와 교사 인터뷰를 통해 학습부진학생의 진단-지원-환류 체계와 초등 입문기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경로 의존성을 밝혔다.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국가와 시도 교육청의 정책 흐름은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원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보다는 담임교사의 책무성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학습의 출발점을 보장하기 위한 초등 입문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찾기 어려웠다. 학습부진학생 지원의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학습부진학생지도의 경로의존성을 개선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태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학습부진 예방을 위해 초등 입문기 학생을 포함한 저학년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지역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원도심,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의 방향성

PISA 2012 결과를 분석한 OECD 보고서⁵⁾에 의하면, 기초학력 미달은 단일한 위험 요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며, 생애 전반에 걸쳐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장벽과 불이익이 결합되고 누적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내심, 동기 및 자신감이 더 낮은 경향이 있고, 수업이나 학교를 결석하는 빈도도 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감소시키는 것에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와 지역적 환경에 맞게 설계된 다각적인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원적 학교 학습 환경 조성, 학부모와 지역사회 참여 장려, 기초학력 미달 학생 파악 및 맞춤형 정책 전략 설계·지원(특별 프로그램 제공 등), 유아교육 접근 불평등 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학습부진의 요인은 노력 부족 등 개인의 요인보다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습부진에 대한 관점 전환이 일정 정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순히 학습의 양이나 시간을 늘림으로써

5) OECD(2016), 「성적 부진 학생은 누구이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OECD 대한민국대표부.

학습부진이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을 중심에 두고 다각적인 지원이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학습부진학생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기초학력 더딤 학생⁶⁾'이나 '배움이 느린 학생⁷⁾'이라는 명칭이나 교사들의 자발적 단체인 '좋은교사 운동'의 '배움찬찬이'라는 표현도 장기적인 성장의 과정에서 학습부진학생을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의 전환으로 파악된다.

학습부진의 주요한 요인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라면, 학습부진학생을 위한 지원도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의 연계를 통해 다층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요하는 일이며,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두드림학교'의 경우, '두드림팀(다중지원팀)'을 구성하여 학습부진학생의 요인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하여서도 학습부진학생의 다양한 부진 요소를 파악하고, 단계별 지도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일정 정도 갖추고 있으며, 단위 학교에서 판별이 어려운 학습부진은 학습종합클리닉 센터로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가 혹은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지원의 흐름은 다중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에 있음에도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아니라 '담임 책임 지도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관점의 변화, 단위 학교 내 다중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인 촉진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난 7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전문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1회 교육전문직원 포럼⁸⁾이 실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정책과는 다른 다양한 정책들이 공유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부진 요인 진단 및 사례 중심의 실천적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한 교사연수 운영 방향의 변화, 학습부진 원인에 따른 정서·심리적 지원, 학습 및 돌봄 지원, 신체·운동지원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한 자존감 및 학습동기 회복으로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역교육청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교육전문직원 대상의 포럼이라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경로의존성을 극복하는데 미칠 파급력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 하겠다.

6) 전라북도교육청(2016), 「2016 주요업무계획」 p33. 전라북도교육청.

7) 서울특별시교육청(2016), 「2016 주요업무계획」 p65. 서울특별시교육청.

8)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 보도자료(2016.7.12.),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공감대 형성-도교육청, 제1회 교육전문직원 포럼 개최」.

2. 학습부진학생 지원의 경로의존성을 개선한 사례

가. ○○초등학교-교내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 1) 방문일: 2016년 9월 20일
- 2) 인터뷰 대상: 교사(연구부장) 1명,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 3) 학교 사례

○○초등학교는 원도심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이전에는 학교 규모가 컸으나 주변에 있던 공단과 상권이 이전 하면서 인구수가 급감하고 따라서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한다. 교육취약계층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이 되었으며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 전교생의 43%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다.

○○초등학교는 학습부진학생을 진단하는 체계에서 다른 학교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학습부진학생을 판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서 보급하는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이전 학년도 수시 평가를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학습적인 면만이 아니라 학습부진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인 특성과 배경 특성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저는 이제 담임 선생님 의뢰가 들어오면 그 아이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구요. 학부모 상담을 실시 할 때는 저희가 가정적인 요인을 찾아 가야하기 때문에 부모 양육태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양육자, 보조 양육자 모두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양육태도 때문에 학습부진이 왔는지 파악합니다. ... 두 번째로는 학교 부적응 검사를 하는데, 학교 부적응 검사는 교사에게 합니다. 담임교사가 일단 학교 부적응 검사를 해서 검사지를 주면 ... 학습장애 평가척도라고 표준화 검사를 실시해서 이 아이가 어느 부분 때문에 학습장애가 왔는지 기초검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조건은 충족하는데 학습능력이나 동기 부족일 때는 담임교사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 저 혼자선 조금 역부족이다 할 때에는 교육복지대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사 선생님께 의뢰를 하구요. 그 다음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 ○○초등학교 전문상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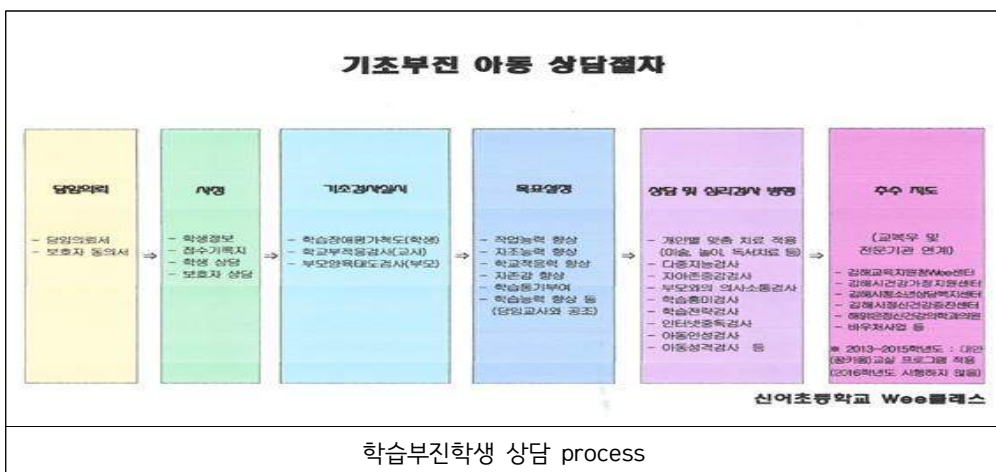
“저희 학교에 형제인데 학습부진이고, 조금 청결하지 못하고 이래서 교육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 아이의 가정 방문을 갔거든요. 갔더니 아빠는 알콜 중독이 의심되고, 단칸방에다가. 가정이 학교와 연계가 전혀 안 이루어지는 집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담임교사가 알게 됐으니까...” - ○○초등학교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해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내 교사와 전문 인력간의 협업체제도 잘 갖추어져 있었다.

“교감 선생님께서 말 그래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데, … 교감선생님께서 다각적인 방안을 활용해 가지고, 저경력 교사 같은 경우는 상담 선생님한테 의견을 듣고, 환경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가시고 … 학습부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학생을 지도해보는데 동의하느냐고 (부모님께)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하기도 하고, 교감 선생님께서 하시기도 하고.” - ○○초등학교 연구부장교사

○○초등학교는 학습부진학생 진단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내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담임 의뢰 → 사정 → 기초검사 → 목표설정 → 상담 및 심리검사의 병행 → 추수지도’ 등 학습부진과 관련한 상담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정방문을 통해 학습부진학생의 양육과 학습 환경을 파악하고 복합적 문제를 가진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해 교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학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학교 관리자의 노력도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교내 자원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지자체의 바우처 제도 등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의 외부 자원 연계의 노력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V-1] 학습부진학생 상담 process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읽기, 리코더, 미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주2회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아이디어는 제가 냈습니다. 그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아이들한테 국어든 수학이든 가르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아이들 자존감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 3학년 같은 경우에 리코더를 많이 하니까 애네(두드림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은 기본 운지법도 모르는데, 이것 하나만 가르친다면, 애들이 음악시간이 얼마나 즐겁겠냐.’ 그러니까 ‘선생님 맞아요, 미술시간에도 애네들이 그림을 그리면 너무 작게 그리고 너무 이상하게 그려요. 동그라미, 세모도 안돼요.’ 그러면 미술도 집어넣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선생님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못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애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해서 리코더, 미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 가져와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 ◇◇초등학교 A교사

학습부진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교사도 지칠 때가 많다.

“기초부진학생을 계속 지도하다 보면, 저도 절망감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 한 사람이 이런 프로그램을 혼자 끌고 갔다면 지치죠. 늘 보던 아이인데. 그리고 서로 지쳐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새롭지 않거든요.” - ◇◇초등학교 C교사

◇◇초등학교 3학년 교사들은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교사의 피로감을 동학년 시스템을 통해 완화시키고, 학습부진학생들에게도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를 향상시키는 것을 학습부진학생 지원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내 반에서 수업하던 아이를 (담임)선생님이 부진아 지도를 하게 되면, 사실 (담임)선생님은 성심 성의껏 가르치신다고 가르치셔도 사실은 그래도 힘들 수 밖에 없는 아이거든요. 그래도 저희(동학년 선생님)는 일주일에 몇 번 만나지 않는 아이, 그리고 잠깐 만나는 아이잖아요. 그러면 성심 성의껏 해지거든요. ... 아이(두드림 프로그램 참여 학생)한테 아무래도 가장 밝은 얼굴과 친절이 베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좋은 거죠. 또 선생님한테 관심을 받는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왜냐하면 몇 명밖에 없으니까. ... 애들(두드림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내가 여기서 좀 잘하면 성취감을 맛본다는 느낌이 굉장히 컸거든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잘하니까, 조금 더 분발하면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 ◇◇초등학교 D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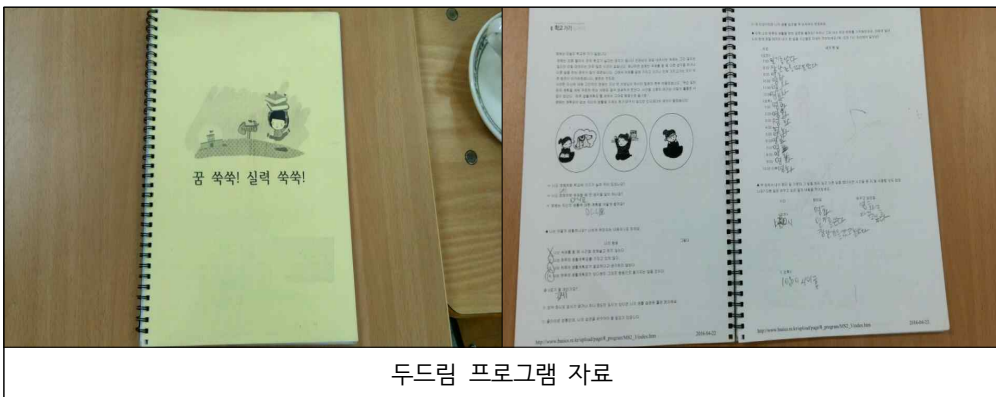
또한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내 체계도 갖추어져 있어, 동학년 협업과 동시에 교내의 전문 인력들도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 좋으면 상담실에 의뢰를 하고요. 교육복지사 선생님께 부탁하기도 하고. 학습부진아 지도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이들의 수학교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수학은 교육복지사업에서 도움을 주니까 수학 선생님은 방과 후에 가르치고 다른 요일을 정해서 우리(3학년 교사들)가 다른 부분을 채워주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습적인 면은 빠지고 정서적 접근을 하게 된거죠. ... 통합반(특수교사)하고 상담실하고 연계해가지고 상담활동도 하고요.

- ◇◇초등학교 A교사

◇◇초등학교는 동학년 교사들, 교내 전문 인력이 함께 하는 협업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고, 학습 부분 이외의 영역에서 학생들의 자존감과 성취동기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돋보였다. 복합적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재도 동학년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두드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해당 학년 교사들은 아침 8시에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러니까 공유와 협력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아이디어와 공유와 협력 세 가지가 합쳐진 것 같아요.” - ◇◇초등학교 C교사



두드림 프로그램 자료

[그림 V-3]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 자료1



두드림 프로그램 음악, 미술 활동 자료

[그림 V-4]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 자료2

다. □□초등학교-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 1) 방문일: 2016년 9월 21일
- 2) 인터뷰 대상: 학교장, 연구부장
- 3) 학교 사례

□□초등학교는 면소재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학교이다. 6학급에 학생 수 60명 정도의 소규모 학교로 학부모의 대부분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의 수가 많다. 이런 가정적 배경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이 학교에 의지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초등학교는 '다져진 학력을 바탕으로 꿈을 실현해 가는 어린이'라는 목표 아래 '단 한 학생까지 이해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활동', '단 한 학생까지 함께하는 독서활동', '단 한 학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학력지도'의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 학교의 경우, 학습부진학생의 범위를 보다 넓게 설정하고, 학생의 가정적 배경을 고려하여 집중적인 상담활동을 중심으로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고 있었다.

“저희가 판별할 때 부진학생들은 객관적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도달, 미도달이 나오는데, 사실 그 경계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은 담임 선생님의 재량에 의해 학습부진학생에 포함시켜서 함께 지도를 합니다. ... 저희 교장 선생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학생들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케어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 학생들이 대부분 학습부진학생들입니다. ... 학습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잘 잡아줘야 하니까 학력지도랑 상담이 같이 간다고 봐야 할 거예요. ... 제가 도시지역 학교에 있을 때는 주로 큰 학교에만 있었습니다. 사실 부진아 지도라고 하면 이게 거의 담임 선생님한테 책임이 집중되는 거죠. '너희 반에 부진아 지도는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런 상담 활동도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중심으로 그것도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지는 경우가 많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는 어렵잖아요." - □□초등학교 연구부장교사

또한 학생의 특성에 따라 Wee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2014년 10명의 학생이 3회 집단 상담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44명의 학생이 총249회에 걸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로 상담 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었다. 학습부진학생의 지도에 있어서도 작은 학교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있었다.

"저희 학교가 소규모 학교라서 가능한 건데,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1학기를 마치고 나면 '나의 성장보고서'라는 것을 가정으로 보내줍니다. ... 포트폴리오입니다. 평가지에 선생님들이 다 첨삭을 해서 가지고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 □□초등학교 연구부장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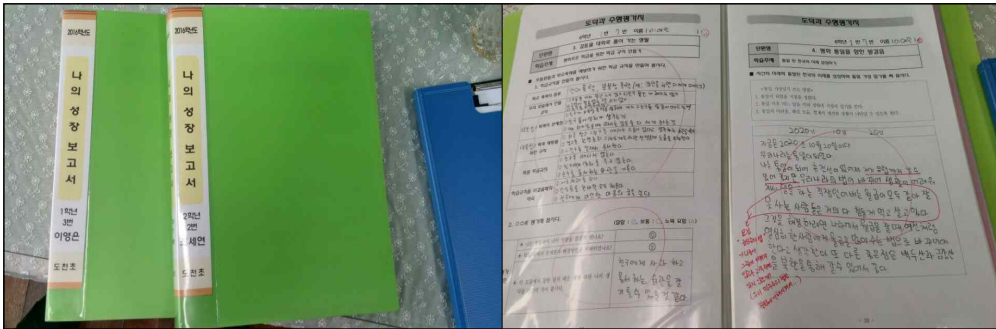
학습부진학생 지도 및 지원의 결과에 대해서도 꾸준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으며,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판별을 연중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다.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4회 정도 점검을 해서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선에 도달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학교장

"처음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하고요. 부진으로 판별되고 나면, 그 학생을 지도합니다. ... 1학기 진단평가에서 판별되지 않은 학생이 2학기엔 학습부진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학생을 학습부진학생으로 추가하고 그렇습니다."

- □□초등학교 연구부장교사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적극적 활용,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관리,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지도 등 □□초등학교는 농어촌 작은 학교가 가진 지역적 불리함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어 내고 있었다.



나의 성장 보고서 및 첨삭지도 내용

[그림 V-5] □□초등학교 나의 성장 보고서 및 첨삭지도 내용

라. ▲▲초등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 1) 방문일: 2016년 9월 23일
- 2) 인터뷰 대상: 교감, 교육과정운영부장
- 3) 학교 사례

▲▲초등학교는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로 공동화 현상에 따른 이주가 잦은 지역이라고 한다. 또한 집에서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저소득층 학생과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다문화학생 중에서도 중도입국학생이 많아 한글 지도부터가 난제라고 했다. 현재 ▲▲초등학교는 다문화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학습부진학생을 ‘배움과 성장이 더딘 학생’으로 지칭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진단활동을 통하여 학습부진학생을 파악하고 있었다.

진단의 체계에 있어서 일회적인 결과 중심의 ‘진단평가’가 아니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가의 목적에 맞는 학기 초 1~2주 간의 ‘진단활동’으로 구성하여 학생 성장의 모든 측면을 두루 살피고 있다. 또한 핵심성취기준 가운데 다시 학교의 특성에 맞게 최소성취기준을 추출하여 해당 학년에 맞게 교재를 제작, 활용하고 있었으며,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신장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낙인을 예방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링, 학부모 지도 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배움 도전 project’를 통하여 학습이 아닌 측면에서도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을 중심으로 ‘배움도전활동’을 운영합니다. 1학년은 전래놀이, 인라인스케이트 2학년은 심화된 인라인스케이트, 3학년은 수영, 4학년은 농구, 5,6학년은

스케이트와 등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산 프로그램은 높은 산을 오르고 낮을 때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체험활동이 안되니까 학교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초등학교 교육과정운영 부장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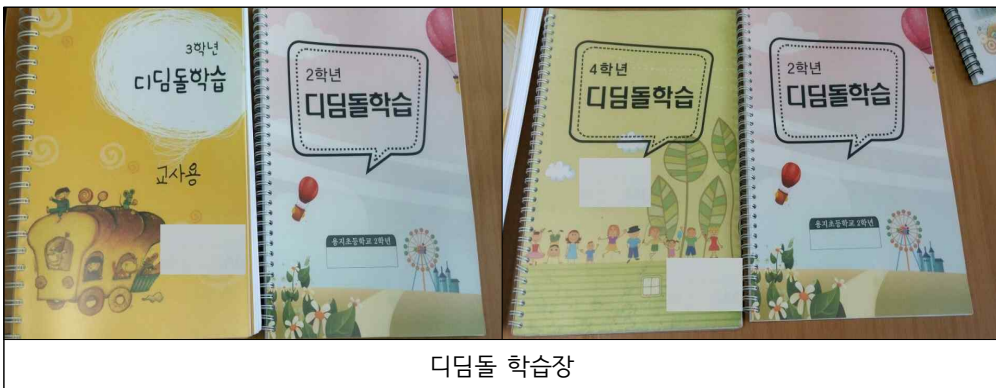
저학년 학습부진학생의 경우는 고학년 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배움나눔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 학습적인 측면과 함께 학생들의 관계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었다.

“1,2학년 학생들이 바른글씨 쓰거나 덧셈 공부를 신청하는 경우, 3,4학년이 맡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옆에서 봐주시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돌보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원해서 왔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참 밝아요. ... 학습적으로 당장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 그리고 배움나눔방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아요. 선배의 입장에서는 나누어 준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껴요. 도움을 받았던 후배는 다시 선배가 되어 후배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초등학교 교육과정운영 부장교사

학습부진학생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했다.

“아이를 중심에 두고 본다면 그런 예산(학습부진학생 지원 예산)이 가장 먼저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핀란드나 북유럽 같은 경우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뛰어난 학생을 중심에 두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학습부진학생 예산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초등학교 교육과정운영 부장교사



[그림 V-6] 디딤돌 학습장

3. 생태체계적 지원 프로그램 적용

생태체계이론의 기본 개념은 인간의 행동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Bronfenbrenner(1979)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여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적 환경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개념화하였다. 미시체계는 개인이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환경요소로 개인이 경험하는 활동과 역할, 인간관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간체계는 개인이 참여하는 둘 이상의 환경들 간의 관계이며 가족, 학교와 이웃, 교우관계 등이 속한다. 외체계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속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부모의 직장,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환경요소를 말한다. 생태체계적 접근이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의미를 갖는 것은 학습부진의 판별과 지원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강희경, 2015). 또한 생태체계 접근은 학습부진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최적화된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복합적 요인을 가진 학습부진의 경우에는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학습부진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두드림학교’의 ‘두드림팀’도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생태체계적으로 접근한 프로그램으로 이대식 외(2012)가 연구한 ‘맞춤형 학업향상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학습부진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맞춤형 학업향상 관리 프로그램’의 절차는 [그림 V-7]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부진 유형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부진 유형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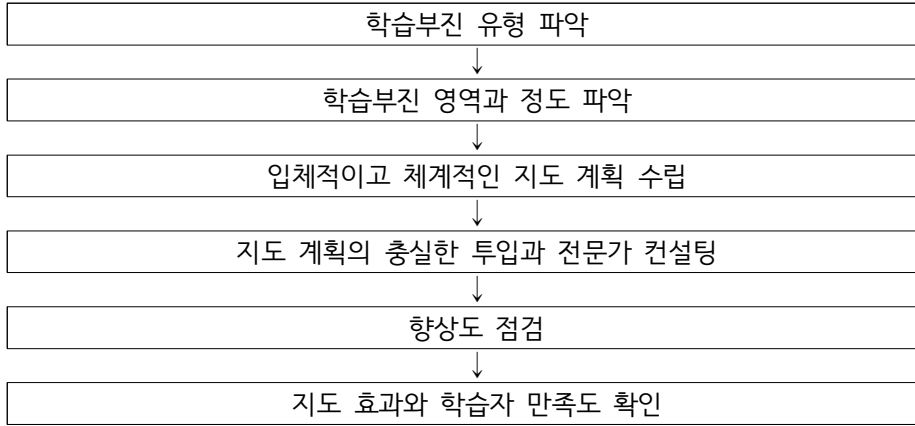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습부진 영역과 정도를 확인하는데 표준화된 학력 검사뿐만 아니라 현재 학습문제가 나타나는 과목, 더 구체적으로 단원, 특정 문제나 과제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학습부진 유형, 영역, 정도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구안하는 단계다. 이때 구안되는 프로그램은 학습 측면만이 아니라 심리, 사회, 기타 환경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 시키면서 학습력을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구안된 프로그램을 투입하고, 그 과정에 전문가 컨설팅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프로그램을 투입하면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프로그램 투입 결과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또 학습자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림 V-7] '맞춤형 학업향상 관리 프로그램'의 절차

이 프로그램은 학습부진 유형을 '과제 지속 및 공부 방법 미흡형', '교과 기본 기술 미흡형', '학습결손 누적형', '가족 지원 미흡형', '친구 관계 어려움형'으로 분류하고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담임교사의 관찰 평가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진단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방법을 설정하는데도 유용하다.

		A 초등학교		4학년 0반 김 JM		
		학습부진 유형 검사 결과		*리커트 3점 척도		
과제지속 및 공부 방법 미흡형(WM)	교과 기본 기술 미흡형(BS)	학습결손 누적형(CD)	가족지원 미흡형(FM)	친구관계 어려움형(FR)		
	○					
학습부진 유형별 담임교사의 관찰 평가						
학생의 특징	장점	WM-1. 숙제와 일기를 열심히 해움. WM-2. 지각 및 결석이 없음. BS-1. 수업시간 발표에 열심히 참여함. BS-2. 모르는 것은 교사에게 계속 질문함. LD**-1. 몸뉠구구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며 간단한 몸뉠구와 나뉠뉠을 해결할 수 있음. FM-1. 할머니와 어머니가 보살펴 줌 FM-2. 가족들이 ADHD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봄.				
	단점	WM-1. ADHD 관정을 받고 약 복용중임. WM-2.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여 여가시간을 컴퓨터 하는 것으로 보냄. BS-1. 말음이 부정확하고 빨라서 한번에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 힘들. LD**-1. 일기 내용이 두서가 없고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음. LD**-2. 도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FR-1.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 FR-2. 작은 것에 화를 잘 내고 흥분하는 성격임. FM-1. 어린 적 부모님이 이혼 후 할머니, 어머니와만 지냄. FM-2. 어머니님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경제형편이 그리 좋지 못함.				
기타 정보						

[그림 V-8] 학습부진 유형 진단 검사 결과 정리 예)

학습 문제 발생 요인에 대한 지도 교사의 의견

진술방식 1

-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자녀 교육에 충분한 관심을 쏟기 어려운 형편이다. 집에서 주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지내고 있어 1학기 컴퓨터 중독검사에서 주의 사용자 군에 속하였다. 자기통제능력이 낮아 가정에서 숙제를 해오지 않으며 수업시간에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 부모님과 의 감정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감정조절 능력이 낮다. 친구들과 말다툼이 있으면 1시간이 넘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학년에서도 담임교사에게 혼이 나면 한없이 울고 있었다고 한다. 학기 초 교실 밖에서 울고 있는 학생에게 들어가서 수업을 하자고 하니 “학교 오기 싫어요. 수업 듣기 싫어요.”라는 말을 하였다.
-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을 어려워하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다른 반 친구에게 가서 논다. 아침자습시간이나 방과 후에 공부를 하다가도 교실 밖에서 친구가 기다리면 안절부절 못하고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려고 하며 하던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림 V-9] 담임교사의 종합적 의견

학습부진 발생 요인에 대한 [그림 V-9]과 같은 담임교사의 종합적 의견은 [그림 V-10]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설정으로 이어진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설정		
목 표	중 재 설 정	중재 과정 및 결과
1. 컴퓨터게임 시간 줄이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줄이고 언니의 확인 받아오기 2)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 전 꼭 알람장을 보고 숙제를 해오도록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학기 컴퓨터 중독검사에서 일반 사용자군에 속함 2) 집에 가기 전에 알람장을 검사하고 그날 숙제와 관련된 교과서를 가방에 챙기도록 하여 집에서 숙제를 할 수 있게 함
2. 우리 반 친구들과 친해지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가 나는 상황에서 울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함 2) 점심시간에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공기놀이나 실뜨기 등을 하며 놀도록 함 3) 모둠일기쓰기, 칭찬릴레이 등 반 친구들과 친해 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기장에 화가 나거나 속상했던 일을 적도록 하여 학생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문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써주었다. 이제는 오랜 시간 울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 2) 학교적응유연성검사 결과 학기 초 반평균 71에 50점이었으나 10월 사후검사에서는 반평균 72에 70점이 나왔다. 3) 반 친구들과 사이가 좋아졌으며 친구들이 학생을 착하다고 좋아한다. 학생 역시 학교에 나오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림 V-10]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설정

9) WM=willingness & method. BS=basic skills. LD=learning disabilities. FR=friend. FM=family. CD=cumulated deficits. 각 유형별 명칭 뒤의 숫자는 특징 일련번호를 의미함.

가정과 협력 시 고려 사항
-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며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 늦게 들어오신다. 딸만 셋인 가정으로 막내딸인 학생의 교육에 관심이 적으시다. 컴퓨터 사용시간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으로 6학년인 언니에게 사용시간을 확인해주기를 부탁했다. 부모님께서 게임 캐쉬를 구매하는데 용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움을 구하였다. - 부모님께서 주말에 가정에 계실 때는 학생의 고민이나 학교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하였다. 아이가 힘들고 속상해서 올 때에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이해해주기를 부탁드렸다.

[그림 V-11] 가정과 협력 시 고려 사항

또한 현장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가정과의 협력, 역할분담도 고려함으로써 학습부진 학생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안되어 있다.

프로그램 운영 평가 결과					
학교 평가					
평가(평가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진단평가(3월 일)	95	67	60	79	78
중간평가(4월 일)	72	52	68	64	72
기말평가(7월 일)	80	76	56	72	92
진단평가(10월 일)	64	74	64	78	80
※참고, 원점수(학년평균, 표준편차) 방식으로 표기함					
ACCENT 평가					
평가(평가일)	정답수/ 전체문항수	해 석			
사전평가(4월 29일)	8/30	사전평가 때는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읽어보지도 않고 포기 하였으나 사후평가 때는 문제를 꼼꼼히 읽으며 풀어보려고 노력하여 사전평가 때 풀지 못하였던 문제를 3문제 더 맞혔다.			
사후평가(10월 24일)	11/30				
담당교사의 학생 발달 정도 및 운영 소감					
3월 진단평가는 25등으로 반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지만 10월 중간평가에서는 5등이 올라 20등을 하였다. 점수가 많이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수업시간에도 발표를 자주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학기 초에 했던 지존감 검사 및 학교적응유연성 검사에서 반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가 나왔으나 10월에는 반평균 수준으로 높아졌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으며 학교에 오기 싫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환없이 울고 있던 버릇이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어서 보람을 느낀다.					
학생 및 학부모의 프로그램 운영 소감					
(학생)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이제는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한다. 친구들이랑 사이가 좋아져서 기분이 좋다. 예전에는 학교에 오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었는데 이제 학교에 오는 것이 재미있다. 내년에도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림 V-12] 프로그램 운영 평가 결과

계량화된 평가와 함께 담임교사의 정성적 평가, 학생과 학부모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결과까지 검토함으로써 지원의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맞춤형 학업향상 관리 프로그램’을 2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습부진학생 26명에게 약 5개월 가량 투입한 이후, 참여 학생들의 수학 성적 향상 정도를 분석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습부진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부진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심리·정서적 문제, 학교와 학습 환경 등이 각각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보다는 단순히 표준화된 점수의 결과에만 근거하여 학습부진학생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학습부진학생을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생태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학습부진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학부모 동의를 구하는 것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학부모 대상 연수 활성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부진학생의 부모가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적인 배려도 뒤따라야 한다. 학부모 연수를 야간 혹은 공휴일에 실시하는 방법, 강의식 연수가 아닌 워크숍, 체험, 분임토의 등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요구된다. 또한 학부모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학습부진학생 진단에 있어 학교의 전문 인력인 특수교사,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등을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인 진단 결과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

4. 초등 저학년 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교육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문기 학생의 기초학습능력에 기반한 교과교육의 출발점을 고르게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학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심, 지역 간 차이, 다문화 가정 여부 등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입학 초기 학습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박순경 외, 2015). 특히 국어와 수학 교과와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문기 학습 격차가 이후 해당 교과 및 타 교과에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백경선 외, 2012). 따라서 초등 입문기 학생 및 저학년 학생에 대한 예방적인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 지원 근거 및 검사 도구 개발

먼저 초등학교 입학 초기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가진 학생(경계선상 지능, 난독증, ADHD 등 학습장애)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중훈(2013)에 따르면, 북유럽의 경우 학습장애 출현율이 8~10% 내외, 미국의 경우 5~6%내외의 출현율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3.83~5.5% 정도의 학습장애 출현율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이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0.07%에 불과하다고 하며, 대부분 학습부진학생으로 방치된다고 하였다. 제주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습부진학생 관련 조사결과¹⁰⁾, 학습부진학생 50명 가운데 난독을 보이는 학생이 18명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지적장애 3명, ADHD 6명 등으로 나와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가진 학생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체계와 검사 도구의 개발이 요구되는데, 대전, 충남, 전북교육청의 경우,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경상남도교육청도 난독증을 포함하여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가진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

교사 인터뷰 및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듯이 입학 초기 학생의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한글 미해득 학생을 위한 지도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http://www.basics.re.kr>)에 초등 입문기 학생 지도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나 교사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 따라서 자료의 활용을 위한 홍보나 필요에 따라서는 재구성하여 교사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별도의 지도 자료를 개발하는데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미 개발된 타시도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전 학년 국어와 수학 교과에 대하여 핵심성취기준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단원마다의 주요 학습요소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당해 학년에서 나타난 학습부진이 어느 학년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느 학년으로 이동하여 학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목록화 체계화 한 것이다. 모든 학년의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저학년 단계에서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

10) 제민일보, 2016년 8월 1일 보도.

더 이른 시기에 학습부진을 보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학습에 대한 보정은 연령이 낮을수록 효과가 높으며, 학습부진이 진행되고 나면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더 낮은 효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백경선 외, 2012). 따라서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교사들이 이미 개발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활용방법을 전달한다면 자료 개발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저학년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조기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6학년 학생이 5-6학년군 핵심성취기준인 ‘주변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6학년 6-1-가-2, 6-2-가-3, 6-2-가-6단원에 나온 학습 요소를 지도한다. 지도 후 학습 부진이 발생할 경우, 5-2-가-5단원의 학습 요소를 지도한다. 여기서도 학습 부진이 발생할 경우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으로 내려가면서 해당되는 단원의 학습 요소를 지도한다. 만약, 3학년에서 학습부진이 발생한 경우 2학년, 1학년으로 내려가면서 해당 단원의 학습 요소를 지도한다.

기초학력 부진 학습 요소 :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쓰기

1. 학년별 기초학력 학습 요소 분석

〈6학년〉

핵심성취기준	단원	학습요소	핵심성취기준 연계성(선수학습)		
			학년-학기	단원	제재
[634-2. 주변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6-1-가-2. 다양한 관점	◦ 글을 읽고 자신의 관점이 드러나게 글쓰기	4-2-가-1	8. 정보를 나누어요	◦ 독서하는 어린이 정정 줄어든다(56쪽)
	6-2-가-3. 적절한 근거	◦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장이 드러난 글쓰기 ◦ 새로운 학급 규칙을 제안하는 글쓰기	6-1-가-1	10. 쓴 글을 돌아보며	◦ 아침밥의 중요성(256-257쪽) ◦ 학급 회의(52-54쪽) ◦ 내 인생의 목적지(59-63쪽) ◦ 거리에 버려지는 동물(73쪽)
	6-2-가-6. 타당한 주장	◦ 주장의 타당성을 생각하며 연설문 쓰기	6-2-가-1	3. 적절한 근거	

2. 핵심성취기준의 위계에 따른 학습의 계열

핵심성취기준의 위계	핵심성취기준의 위계에 따른 학습의 계열						
	학년	1	2	3	4	5	6
<p>(1-2학년군)</p> <p>◦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을 문장으로 쓸 수 있다.</p> <p>◦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글로 쓸 수 있다.</p> <p>(3-4학년군)</p> <p>◦ 주변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글로 쓸 수 있다.</p> <p>(5-6학년군)</p> <p>◦ 주변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이유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p>	단원	1-1-가-6	2-1-가-4	3-2-가-2	4-1-가-7	5-2-가-5	6-1-가-2
	학습 요소	1-1-가-8	2-1-가-7	3-2-가-9	4-2-가-2	5-2-가-5	6-1-가-2
		1-2-가-5	2-2-가-1				
		1-2-가-8	2-2-가-6		4-2-가-7		6-2-가-6
		1-2-가-8	2-2-가-6				
		1-2-가-8	2-2-가-6				
		1-2-가-8	2-2-가-6				
	1-2-가-8	2-2-가-6					

[그림 V-13] 기초학력 핵심요소 분석 자료 활용 예시

다. 저학년 담임교사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초등학교 입문기를 포함하여 저학년 학생들은 이후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기초적인 학습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에 있다. 따라서 이 시기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는 보다 폭넓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취학 전 학생들이 경험한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며, 입학 초기 학생들의 학교 적응활동을 돕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교과 지도 등 여러 측면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초등 입문기 학생 부진 예방을 위한 직무연수’를 통해 1학년 담임교사들의 학년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저학년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 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수업전년 학년담임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수업전년 학년담임제’란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담임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학습도우미를 2015년 2학급당 1명에서 2016년 1학급당 1명으로 확대 배치했다. 학습도우미들은 주당 10시간 이상 수업 시간에 투입되어 담임교사와 함께 학습을 지원하고, 방과 후에는 학력보정 프로그램과 숙제를 점검, 지도하는 등의 학습보조활동을 한다.

강원도교육청은 ‘한글 교육 책임제¹¹⁾’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글 교육 책임제’는 초등학교 한글 교육 운영 시수 부족에 따른 한글 미해득 학생 발생 및 입학 전 선행교육과 사교육에 따른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초등 1학년 교육과정 내 충분한 한글교육 시수 확보(27시간→55시간 이상),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한글교육 연수 체제 마련, 한글 기초문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연구회, 한글교육자료 개발 보급, 초등학교 1·2학년 담임연임제 권장,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초등학교 2학년 협력교사제 시범 운영 및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읽기 부진 방지 3단계 조기 개입 시스템을 도입하여 1단계 학급 단위 한글 교육 담임교사 책임지도 환경 구축, 2단계 기초 문해력 부진 학생을 위한 학교 내 한글 교육 중점 지도, 3단계 난독증 등의 학생을 위한 학습클리닉, 병원 등 전문적 치료 지원 등 단계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지원과 지원 시스템의 구축은 저학년 담임교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한편, 책무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11) 강원도교육청 보도자료(2016.10.6.). 「공정한 출발 위해 학교가 한글교육 책임진다」.

5. 원도심 및 농어촌 학교에 대한 우선적 지원

인터뷰에 참여한 교사들에 따르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원도심과 농어촌 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습부진학생이 많으며 그 요인 또한 복합적이라고 한다. 이는 지역 배경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런 지역에는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가. 정책 사업과의 연계

원도심 및 농어촌 학교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정책 사업과 꾸준히 연계되어야 하며,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두드림 학교’의 경우, 원도심이나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 기간도 1년 단위의 공모가 아닌 장기적인 운영을 통하여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두드림 학교’ 운영 예산도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해당 학교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상한선을 정해두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 상담 및 학습 코칭단 활용 등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자원도 원도심과 농어촌 학교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2017년부터 시작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사업에도 지자체 선택 과제로 원도심이나 농어촌 학교 학습부진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실시하는 것도 지역 배경으로 인한 학습부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육복지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가 중복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인력 배치 조정을 통하여 보다 원도심과 농어촌 학교에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원도심 및 농어촌 학교에 우선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원도심과 농어촌 학교를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원도심 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기, 강원, 제주, 충남, 충북교육청 등의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원도심 및 농어촌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해서 타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참고로 할 만하다.

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원도심 및 농어촌 학교는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소규모 학교, 소인수 학급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서 제안한 생태체계적 학습부진학생 지원 프로그램인 ‘맞춤형 학업향상 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위 학교에서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해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줄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목록이나 교육 자원 지도의 형태로 학교에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인데 특히,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자원이 많지 않은 농어촌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자체와 교육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원도심이나 농어촌 학교 교사들의 학습부진학생 지원과 관련한 교사동아리, 학습공동체, 연구회 등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학습부진학생 관련 연수 또한 정책 이해 중심의 연수에서 학생 사례 중심의 연수로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Ⅵ.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교육형평성 측면에서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정책의 흐름을 개괄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근거한 단위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학습부진학생의 학교생활 전반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향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가. 학습부진학생과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 흐름의 이론적 검토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서 학습부진학생과 지원 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개념을 비교하고, 학습부진의 원인과 유형, 교육복지적 관점에서 교육소외, 학습부진학생의 특성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학습부진학생을 통상적으로 학습에 있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이 아니라 ‘학업 수행에 곤란을 느끼는 모든 학생’이라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학습부진이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낮은 학습동기 혹은 노력 부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정환경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거주지 분화에 의해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의 흐름을 국내와 세계적 동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국내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199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시기는 ‘학습부진학생 책임 지도제’를 중심으로 한 교사 중심의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에 따른 ‘학력 향상 중점학교’ 등 다양한 학교 내 학습부진학생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학교 중심 지원 체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는 학습부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진단-보정-관리 시스템 구축, 학생과 학교에 대한 외부 전문지원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다중 지원 체제의 시기로 볼 수 있었다.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도 이와 비슷한 궤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과 복지의 연계, 학습부진에 대한 사회적 수준의 접근, 사전 예방에 대한 강조,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집중적 지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다중 지원 시스템과 학습 방해 요인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 등 그것이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나.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학교 실태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학교 실태는 학교교육계획서 분석과 현장 교사 인터뷰, 1학년 담임교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8개 학교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교교육계획서 상에 나타난 학습부진학생 지원 계획을 분석하였다. 단위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지도 계획이 아니라 학교교육계획서를 분석한 근거는 학교교육과정을 '제도'로서 파악하는 관점을 취했기 때문이다. 제도적 범주로서 교육과정을 수용한다는 것은 교사의 행동논리가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교육과정에 따라 교사의 행동논리가 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면, 교사들의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 대한 행동논리도 그렇게 결정될 것이다.

8개 학교의 3년간 학교교육계획서에 나타난 학습부진학생 지원 체계를 진단체계, 학습 지원 체계, 다중 지원 체계, 환류 체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진단과 학습 지원 체계에 비해 다중 지원과 환류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차원에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이 표준화 검사를 통한 일회성 학습부진학생 분류, 학습 중심의 지원으로 경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2014년도 1개 학교에서만 발견되던 다중 지원 프로그램이 2016년 3개교로 늘어났다는 사실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에 대한 이해가 일정정도 진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시 지역 8개 학교, 군 지역 8개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담당 및 관련 업무 교사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교사 인터뷰는 크게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 학습부진학생 지원 체계에 대한 실태,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가로막는 저해 요인으로 범주화 하여 진행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학습부진학생을 만나는 교사들은 학교가 위치한 가정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학습부진의 주요한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농어촌 학교나 원도심 학교의 경우는 학습부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진단은 학년 초 일회성 진단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판별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도 및 지원도 담임교사 학생을 방과 후

시간에 학습지 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이후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환류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없었는데, 이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 1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에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진단-지도 및 지원-환류의 과정에서 학생의 전반적인 성장이 고려되고 있다기 보다는 특정 점수를 상회하기 위한 반복적인 문제 풀이와 결과 중심의 학습부진학생 지원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학습부진학생 지도와 지원에 있어서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관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안정적인 지도 시간 확보, 전문적인 진단과 지원의 부재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이 현재 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지원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토로했으나,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세 번째, 초등 입문기 학생의 학습 및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1학년 담임교사 8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응답교사 중 83%가 담당학급에 입학 시 한글 미해득 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입학 초기 한글 미해득 학생 가운데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통하여 한글 해득이 된 학생은 10% 불과하다고 응답하였다. 9월까지 한글을 해득하지 못한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21%였으며, 부분적 해득만 가능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65%에 이르렀다. 또한 77%의 교사들이 입학 초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84%의 교사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1학년 학생들을 위한 한글 지도, 기초 셈하기 지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입학 초기부터 이미 진행된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정책적 필요가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다. 경로의존성을 통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실태 분석

학교교육계획서 분석, 현장 교사 인터뷰, 1학년 입문기 담임교사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행 학교 현장의 학습부진학생 지도 및 지원에 대한 뚜렷한 경로의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로의존성이란 특정한 정책이나 제도가 지속되는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 원용되는 개념인데, 특정한 관행에 익숙해지고, 그에 의존하면 후에 그 경로의 비효율성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이 90년대의 담임 책임지도, 2000년대의 학교 체계를 통한 지원, 2010년대 다중 지원 체계 등으로 뚜렷한 변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정책적 변화의 흐름이 반영되기 보다는 기존의 학습부진학생 지도 및 지원의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진단 체계에 있어서 일회성 진단평가를 통한 학습부진학생 판별, ‘담임 책임’에 기초한 학습지 풀이 방식의 지도 및 지원 체계, 1년 단위의 학습부진학생 판별과 지도, 초등 입문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학습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초등2~3학년 단계까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판별을 늦추는 ‘제도적 방치’ 등이 모두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학교 현장의 경로의존성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라. 학습부진학생 지원의 방향과 방안

선행연구 분석 및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습부진의 요인은 개인적 요인 보다는 가정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기반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들은 학습부진에 대한 관점이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 현장의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안이 가지는 경로의존성이 개선되거나 극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학교 현장의 경로의존성을 개선한 사례로 교내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한 ○○초등학교, 동학년 중심의 학습부진학생 지원 체계를 구축한 ◇◇초등학교, 지역사회 자원을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활용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부진학생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학습부진학생 지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생태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학업향상 관리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안하였으며, 초등 저학년 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으로 지원 근거 및 검사 도구 개발, 지도 자료의 개발과 보급, 저학년 담임교사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불리한 지역적 배경을 가진 원도심과 농어촌 학교에 대한 우선적 지원 방안으로 기존 정책 사업과의 연계 및 사업의 우선권 배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각각 제안하였다.

2. 정책 제언

기존에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요인의 결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학습부진의 요인이 가정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관점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학습, 심리·정서, 지능, 가정 배경 등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불리함’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취약계층’이라는 말로 통칭하고 있으나 이들의 ‘불리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들이 가진

‘불리함’을 ‘교육적인 요구’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보다 포괄적인 형태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보다 조기에 지원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공교육 개혁의 모델이 되고 있는 핀란드 교육철학 “누구도 보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말은 경상남도교육의 공동체성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철학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학생이 가진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생태체계적 프로그램 개발 적용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생태체계적 접근 방법은 학습부진의 판별과 지원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며 이는 학습부진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그에 따른 최적화된 개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유용하며, 복합적 요인을 가진 학습부진의 경우에는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현재 생태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정책 사업으로는 2006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시작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두드림 학교 사업을 들 수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경우는 한 번 지정되면 3년의 안정적인 사업 기간을 가지고 추진되는데 비해, 두드림 학교 사업은 1년 기간의 공모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다. 특히 두드림 학교 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달리 학습부진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기존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안이 가지고 있는 경로의존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과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두드림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중지원팀’의 우수 사례를 비사업학교에도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교사들이 연수를 통하여 다양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지원 사례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나. 초등 저학년 학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강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 간 차이, 다문화 가정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초등 입문기 학생의 학습격차는 ‘이미 발생한 문제’이며, 이후 더욱 심화되어 공식적인 학습부진학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 초기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가진 학생(경계선상 지능, 난독증, ADHD 등 학습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향상지원 사이트(<http://www.basics.re.kr>)의 초등 입문기 학생 지도 자료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연수나 핵심성취기준을 목록화,

체계화하여 즉각적인 보정을 투입할 수 있는 자료의 활용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한글교육 시수 확대에 따라 초등 입문기 학생과 저학년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한글 교육 책임제’의 도입과 초등 저학년 교사들을 위한 연수, 담임연임제, 수업전년 학년 담임제의 적용도 검토할 만한하다.

다. 원도심 및 농어촌 학교에 대한 우선적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오늘날 학생에게 발생하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은 그 원인이 학교 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교가 학생이 가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접근의 방법과 해결을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의 학생 지원 시스템 속에는 보다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고, 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학교보다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와 연계할 필요성이 대두한다.

특히 원도심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 지역적 취약성으로 인해 드러나는 학습부진학생의 경우,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학습부진학생 지원 사업인 ‘두드림 학교’의 경우 원도심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예산도 학교의 특성에 맞게 상한선을 두고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년도부터 시작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사업에도 지자체 선택 과제로 원도심이나 농어촌 학교 학습부진학생 지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원도심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옥려·홍성두·이기정·김이내·김동일(2008). 미국의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절차에 관한 고찰. 학습장애연구. 제5권 제2호.
- 곽영순·백경선·이미숙·민재원·김용(2013). 교사의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 강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C 2013-7
- 김경희·김수진·김남희·박선용·김지영·박효희·정송(2008). 수학·과학 성취도 평가 추이 변화 국제비교 연구 - TIMSS 2007 결과보고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E 2008-3-3
- 김선·김경옥·김수동·이신동·임혜숙·한순미(2001). 학습부진의 이해와 교육. 서울: 학지사.
- 김우리·김동일(2012). 장애영재의 진단과 교육: 중재반응모형(RTI)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제13권 제4호.
- 김중훈(2013). ‘학습장애로 인한 학습부진, 학부모들이 원하는 정책은?’ 국회 토론회 자료집. 강은희 의원실.
- 김중훈(2014). ‘기초학습보장지원법’ 제정을 제안한다. 배움찬찬이 연구 프로젝트 정책토론회 자료집. 좋은교사운동.
- 류방란·김성식(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익·현주·임연기·서혜경(1984). 중학교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84-12.
- 박성혁·이지혜(2008). 학습부진아의 교육받을 권리보장: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0권 1호, 29~46쪽.
- 박순경·홍선주·권점례·이승미·정은주(2015). 초등학교 입학 직전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의 실태와 시사점. KICE POSITION PAPER. 제7권, 제1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백경선·박순경·권점례·구학산(2012).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 수학 교육과정의 수준 적합성 제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C 2012-3.
- 안병영, 김인희(2009). 교육복지정책론. 서울: 다산출판사.
- 어영경(2010). 평생교육정책의 경로의존성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길석 외(2008). 2007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양정호(2008). 교육양극화와 공교육 활성화 방안. 국회도서관보. 2008년 November, 33-39
- 이경화, 전제웅(2007). 국어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문식성 지도 실태와 인식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권 1호.
- 이대식(2015).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의 특징과 발전 방향. 학습장애연구, 제12권 제3호.
- 이대식·남미란·문주연·류경우(2012). 초등학교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업향상 관리 프로그램’ 적용 효과. 교육과학연구, 43(2).
- 이대식, 황매향(2011). 『학습부진학생의 이해와 지도』, 서울: 교육과학사.
- 이미경·손원숙·노언경(2007). PISA 2006 결과 분석 연구 - 과학적 소양, 읽기 소양, 수학적 소양 수준 및 배경 원인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RRE-2007-1
- 이윤석(2015).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 ‘국토’. 2015년 4월호. 56쪽.
- 이찬승(2015). ‘우리도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기초학력 향상 토론회 자료집. 정진후 의원실.

이혜정·이근영·김위정·김성경(2014). 경기도 학습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실태와 개선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이혜정·백병부·홍섭근·이대식(2013). 경기도 학습부진 학생 실태와 지원 방안. 경기도교육연구원.

정대영(2010). 미국의 반응중심 중재법 채택이 국내 학습장애 진단평가 정책에 주는 시사점.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정원식 외(1979). 학습 부진아의 원인규명을 위한 사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조지민 외(2007). 2006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 RRE 2007-3.

[부록]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안 연구 설문지

연구의 목적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경남의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보호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초등교육정책 연구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설문요령

※ 이 설문에 대한 응답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항을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2. 각 문항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고 성의 있게 답해주십시오.
3. 보기가 있는 문항에는 ○ 또는 √을 표시해 주십시오.
4.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답해주십시오.

□ 응답자 일반 사항

1. 선생님의 근무 학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① 시(동)
- ② 시(읍, 면)
- ③ 군(읍, 면)

2. 선생님의 교직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 ① 5년 이하
- ② 6~10년 이하
- ③ 11~20년 이하
- ④ 21~30년 이하
- ⑤ 31년 이상

3.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 ② 여

4. 선생님은 다음 중 어느 학교에 재직하고 계십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행복학교
- ② 두드림학교
- ③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 ④ 일반학교
- ⑤ 기타()

5. 선생님이 재직하고 계신 학교 주변의 생활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
- ② 중
- ③ 하

□ 초등 입문기 학생 한글 해득 실태

1. 현재 담당하시는 학급의 학생 중, 3월 입학 시 한글 미해득 학생이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2. 담당하시는 학급의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명

3. 3월 입학 시 한글 미해득 학생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명

4. 입학 시 한글 미해득 학생을 위한 별도의 지도가 있었습니까?
 - ① 학교 차원에서 학기 초 별도 교육이 있었음
 - ② 교사 개인 차원에서 학기 초 집중 지도를 하였음
 - ③ 입학초기적응활동에 포함하여 지도를 하였음
 - ④ 별도의 지도가 없었음
 - ⑤ 기타 ()

5. 입학 시 한글 미해득 학생의 경우, 9월 현재 국어과 수업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① 한글 해득이 되어 무리없이 잘 이해하고 있음
 - ② 어느 정도 해득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음
 - ③ 아직까지 한글 해득이 안 되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함
 - ④ 기타 ()

6. 한글 해득이 가능했다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 ① 학기 초 집중지도
 - ② 수업 중 개별지도
 - ③ 방과 후 지도
 - ④ 가정에서 보충지도
 - ⑤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한 지도
 - ⑥ 기타 ()

7. 9월 현재 한글 미해득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 ① 수업 중 개별지도
 - ② 방과 후 지도
 - ③ 가정에서의 지도 권유
 - ④ 특별한 지도를 하지 않음
 - ⑤ 기타 ()

□ 초등 입문기 학생 기초 셈하기 실태 및 지도 방안

1. 현재 담당하시는 학급의 학생 중, 기초 셈하기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2. 담당하시는 학급의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명

3. 현재 기초 셈하기를 하지 못하는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명

4. 기초 셈하기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 ① 수업 중 개별지도
 - ② 방과 후 지도
 - ③ 가정에서의 지도 권유
 - ④ 특별한 지도를 하지 않음
 - ⑤ 기타 ()

5. 학습부진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1학년 대상의 체계적인 학습 진단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교과서 이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1학년 학생들을 위한 한글 지도, 기초 셈하기 지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학습부진학생 지원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안 연구 면담지

연구의 목적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면담은 경남의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담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6년 8월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초등교육정책 연구팀

순	인터뷰 문항	영역
1	선생님은 학급에 부진학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실태
2	선생님은 부진학생 판별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판별
3	선생님은 학습부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인
4	선생님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부진학생을 지도합니까?	지도 방법
5	선생님은 학습부진학생의 판별과 지도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판별, 지도시기
6	선생님은 학급의 학습부진학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진단
7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학습부진학생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 실태
8	선생님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부진학생 지원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원 성과
9	선생님이 생각할 때, 학습부진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프로그램, 지도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원 방안
10	선생님이 학습부진학생 지도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지원 저해요인
11	선생님은 학습부진학생 지도 관련 연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문성
12	선생님은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해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책지원방향

2016.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 연구 보고서

학습부진학생 지원 방안

발행일

2016년 12월 27일 인쇄

2016년 12월 27일 발행

발행인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황 선 준

기 획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안 태 환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김 영 희

연구자

책임 연구자 연구원 김 성 호

공동 연구자 교사 이 경 주

공동 연구자 교사 김 충 식

공동 연구자 교사 문 해 원

공동 연구자 교사 진 영 학

공동 연구자 교사 정 지 영

공동 연구자 교사 구 소 영

공동 연구자 책임연구원 전 흥 표

공동 연구자 책임연구원 류 영 철

발행기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641-825)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20

누리집: <http://www.gerii.go.kr>

전 화: (055)269-0777

전 송: (055)269-0789

인 쇄

그라지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 <http://ebook-lib.gerii.go.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
아이중아